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August 2013 vol.101

이달의 이슈

창조경제 시대의 빅 데이터
정우수
빅 데이터와 공공 정책
전승우

생생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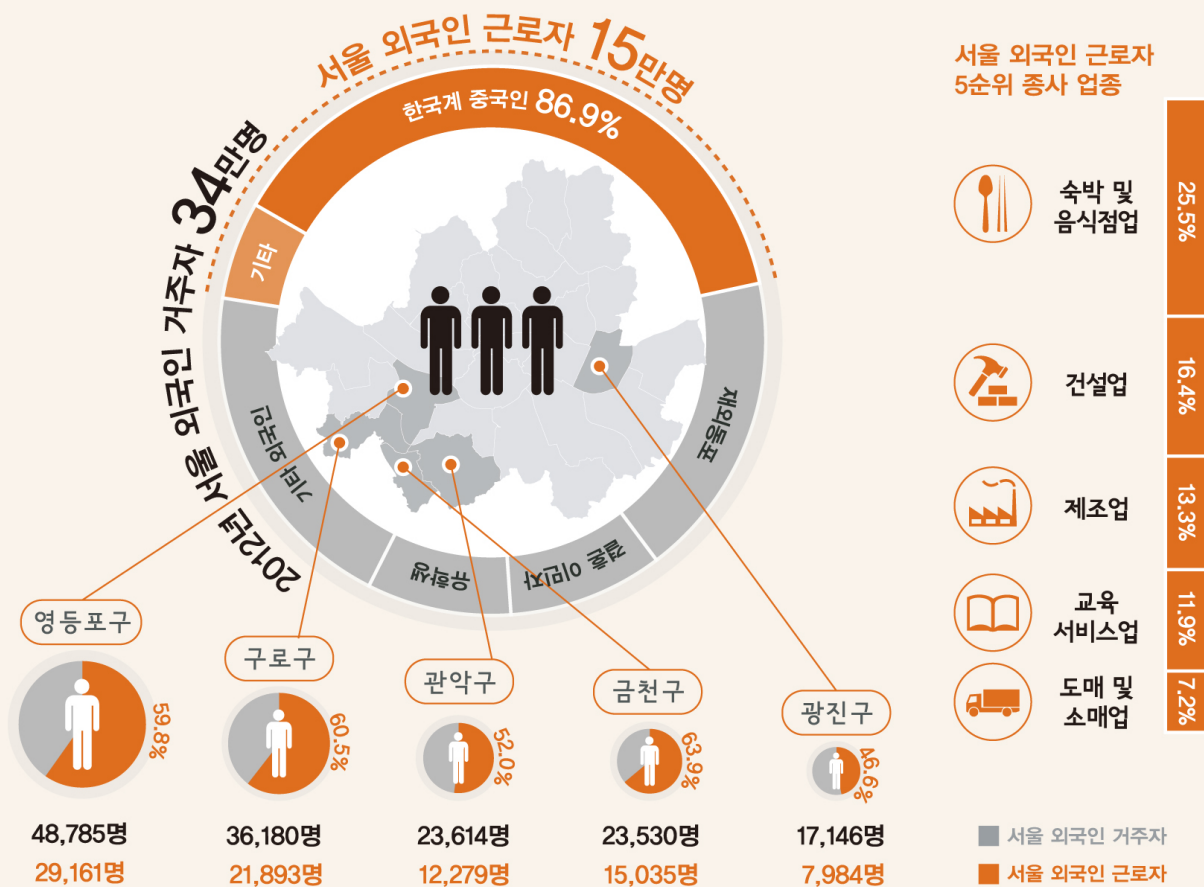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김태홍
인포그래픽스
서울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부록
통계표

8

서울 외국인 근로자는 15만명으로 5년간 1.4배 증가
한국계 중국인이 86.9%



주) 외국인 거주자: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5순위 종사 산업은 2012 외국인고용조사(통계청) 자료 활용,
5순위 종사자 산업을 제외한 정보는 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자료 활용

자료: 2012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현황(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2012년 외국인근로자(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통계청)

이달의 이슈	3	창조경제 시대의 빅 데이터 정우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동향분석팀장)
	12	빅 데이터와 공공 정책 전승우(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생생리포트	23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김태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인포그래픽스	35	서울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41	요 약
	43	생 산
	45	소 비
	46	고 용
	49	물 가
	50	부동산
	52	금 융
	60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부록	65	통계표

창조경제 시대의 빅 데이터

정우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동향분석팀장

wsjeong@kait.or.kr



1. 창조경제를 위한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결합되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생겨나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창조경제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에 해당된다.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미 1998년 영국 문화미디어 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에 의해서 제기되어 국가차원으로 본격화 된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 차원으로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경제를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창조적 자산 혹은 그에 기반한 산업”으로 정의하고 창조산업 전략보고서를 발표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창조경제에 대한 이들 정의는 주로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적 산업이 도시경제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¹⁾.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동국대학교 경제학 학사,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 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동향분석팀장, 빅데이터 포럼 사무국장
 - 전) 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경쟁전략 모형을 이용한 빅데이터 산업구조 분석(2013), 사물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13), 미래인터넷의 경제적 가치 분석에 대한 연구(2012), M2M 산업 시장분석 연구(2012),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11) 등
- 1) 민경식, 창조경제 시대의 ICT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 2013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정책 및 창조경제 session, 2013.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에 따라 웹에 대한 새로운 요구의 증가, 소비자 중심의 애플리케이션 보급의 확대, SNS 환경아래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확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경제사회는 산업의 관점이 기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즉, 가격대비 성능이 강조된 과거 산업사회에서 플랫폼 중심이었던 정보화 사회를 거쳐 후기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화하였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에 의하면, 현재의 한국사회는 후기정보화 사회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앞으로 컨셉과 감성의 사회로 변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화의 발전은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개인이 창출한 지식이 중요해지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다만, 20세기 산업사회에서는 지식이 저술을 통해 신문이나 도서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정보기기를 통해 확산되는 점이 다를 수 있다. 오늘날 지식은 정보화라는 기술기반을 토대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2. 창조경제 시대의 빅데이터

1) 빅데이터의 개념 및 필요성

빅데이터는 데이터 형식이 다양하고, 생성 속도가 매우 빨라 새로운 관리·분석 방법이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인력 뿐 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활용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오늘날 경제 및 경영환경에서 불확실성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의 요구와 함께 등장하였다. 축적된 수많은 데이터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현상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McKinsey(2012)의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운 시장의 발굴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빅데이터에 기반한 경영전략 수립은 기업의 성과를 증진시키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데이터의 규모(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가치창출이 가능한 데이터가 폭증함에 따라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빅데이터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 트래픽 급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 생성 대비 저장 공간은 부족할 정도로 빅데이터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민간·공공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2012)의 보고서에 의하면, 빅데이터는 정부·공공부문에서 GDP의 0.4%에 해당되는 4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²⁾.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사회현안 및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미래전략 수립, 선제적 공공서비스 제공 등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혁신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현재
속도	일괄적 데이터 처리	→	실시간 분석과 처리
다양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형데이터	→	문서,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데이터
규모	Giga → Peta → Zeta 등 새로운 단위로 빠르게 증가		

[그림 1] 빅데이터의 특징 및 전개

2) 국내 빅데이터 시장환경

빅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형성 중에 있는 단계이며, 우리나라가 보유한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의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산업이다. 국내 시장 환경을 살펴보면, 해외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가격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내 IC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 이라는 점에서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빅데이터 서비스는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가운데 사업유형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기술, 장비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존 장비, 솔루션, 분석 서비스 사업자 뿐 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하고 있어 사업자 구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분석 및 활용기술을 가진 네이버, 다음소프트, SKT, KT 등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기존의 분석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서비스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 주요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 이부형, 빅데이터의 생성과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현안과 과제, 12-35, 현대경제연구원, 2012.

<표 1> 국내 주요 빅데이터 기업의 사업현황

사업자	주요 사업 현황
네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부터 빅데이터 주요 기술인 하둡을 도입하여 데이터 관리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서비스에 적극 활용 - 음악추천기능인 서비스, 자동완성, 연관검색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등
다음소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 메트릭스’를 활용하여 소셜미디어 분석 전문기업으로 성장 - SNS상의 검색어들을 통해 소셜 모니터링이나 사회관계망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
S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2월 지도와 위치기반서비스 기술을 결합해 상권분석, 고객관리 등을 지원하는 ‘지오비전’ 솔루션 출시 - 빅데이터 인프라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양한 빅데이터 영역이 결합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2012년 11월 네이버와 업무협력 체결
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9월 코리아크레딧 뷰로(KCB)와 업무협조를 체결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 - 2013년 4월 서울시와 MOU 체결하여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검증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빅데이터 통계정보 제공 등의 역할 수행

3)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전략 모형 분석

빅데이터 시장의 주체로는 이용자(고객), 단말/장비 공급자, 소프트웨어 공급자,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정책결정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이용자는 빅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주체로서 빅데이터 산업의 최다 수혜자이며 확산의 주체이다. 이들은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인 및 기업, 기관 등이 대상이 된다.

둘째, 단말/장비 공급자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단말 및 장비를 제공하는 제공업체를 의미하며 제조업체가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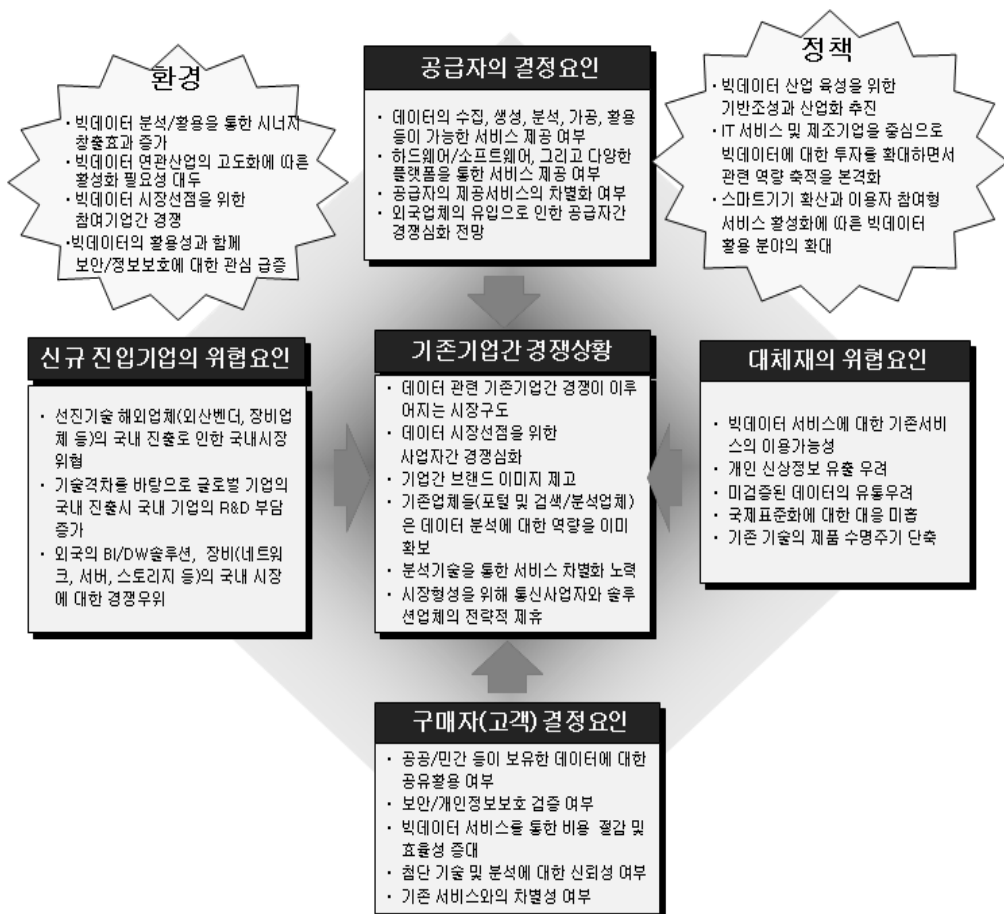
셋째,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수집, 저장, 분석,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주체가 된다.

넷째,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통신사업자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빅데이터 서비스를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체이다. 교육 및 컨설팅, 솔루션 제공(분석, 저장, 관리, 검색, 통합 등), 데이터 및 정보제공, 데이터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정책결정자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주체에 해당된다.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하는 빅데이터 주요 이슈는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과

데이터의 무결성, 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문제 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림 2]는 빅데이터 산업 내 경쟁자를 중심으로 산업 내 신규 진입기업의 위협요인, 협력업체(공급자), 구매자 결정요인, 대체재의 위협요인 등 5가지 경쟁세력과 기타 외부 요인으로서 빅데이터 환경과 정부의 정책을 포함한 경쟁전략 모형을 나타낸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데이터 관련 기존 기업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 관련 기존기업으로는 포털, 검색/분석 업체 등이 존재한다. 기존업체들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역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면서 일부 데이터도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방법론, 기술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성능,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상용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그림 2]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전략 모형

산업 내 신규 진입기업을 분석한 결과, 빅데이터 시장은 서비스 기술이 앞서있는 해외업체의 국내 진출로 인한 국내시장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신규 진입기업은 이동통신사,

디바이스 생산회사, 외산벤더, SI 사업자, 신생업체 등이 존재한다. 신규 진입기업의 유형 및 특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신규 진입기업 유형 및 특징

	특징
이동통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수익원으로서의 사업기회 모색 -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갖고 있음 - 과거에는 데이터를 통신사업 용도(과금계산, 요금추정 등)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분석/활용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디바이스 생산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공급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서비스, 콘텐츠와 연동될 수 있는 기반시스템에 관심 - 오픈소스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술력을 내재화하고 있음
외산벤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BI/DW 솔루션 회사인 테라데이터, 오라클을 비롯하여 EMC, HP, IBM 등도 기존 솔루션 또는 신규 솔루션을 이용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음
SI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업진출 혹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을 목표 - 신규 사업진출은 내부기술 확보의 어려움 내포 - 분석시스템 구축은 오픈 소스 기반의 경우 매출 발생의 어려움이 존재
신생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둡 기반의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갖추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집중 - NEXR, 그루터 등

<표 3>는 경영학에서 자주 쓰이는 경쟁전략 모형을 이용하여 빅데이터 산업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도출한 것이다. 기회(opportunity)요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융합 환경 구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데이터 활용의 관심 확산, 시장형성을 위한 사업자간 전략적 제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수요의 창출기회 제공,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표준화 지원, 지속적 빅데이터 시장수요 증가,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통신망에 대한 노하우 및 ICT/인프라와 기존망과의 연계성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위협(threat)요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신규서비스 모델 부재,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수입비용 증가, 높은

수입 장비 비율, 미 검증된 데이터의 유통 우려, 선진기술 해외업체의 국내 진출, 요소 부품의 과중한 해외의존도,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 미흡, 핵심 기술(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 해외의존도 심화 등은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빅데이터 참여주체는 빅데이터 사업 참여시 빅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노하우와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기능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환경에 따라, 정부, SW 개발업체,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한 마인드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경쟁전략 모형 분석을 통한 기회 및 위협 요인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융합 환경 구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 • 데이터 활용의 관심 확산 • 시장형성을 위한 사업자간 전략적 제휴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 수요의 창출 기회 제공 •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표준화 지원 • 지속적 빅데이터 시장수요 증가 •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신규서비스 모델 부재 •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수입비용 증가 • 높은 수입장비 비율 • 미검증된 데이터의 유통 우려 • 선진기술 해외업체의 국내 진출 • 요소부품의 과중한 해외의존도 •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 미흡 • 핵심기술(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 해외의존도 심화

3. 서울시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

서울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수도이면서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사회,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면적은 약 $605.4km^2$ 로 통근 및 거주지역의 반경이 30km에 달하고 있고, 인구는 1,044만 명('13년 2분기 기준)에 달한다.

경제발전과 함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은 단순히 의·식·주 등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보다 높은 요구를 갈망한다.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난/재해, 인구의 고령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나아가 산업고도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새로운 질병의 발생,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급증 현상 등이 발생되고 있다.

<표 4> 서울시 주요 통계 현황

분류	주요 통계 현황
인구	서울시인구 1,044만 명('13), 357만 가구('13)
보건/복지	의료기관 15,942개('12), 독거노인수 238,551명('12)
산업/경제	실업률 3.7%('13), 소비자 물가지수 107.6('13)
시민안전	화재발생 5,724건('12), 교통사고 사망자 419명('12), 5대 범죄발생 건수 137,725건('12)
주택/건설	주택보급률 97.3%('12)
기후/환경	천연가스 버스대수 7,896대('12), 대기오염 $55\mu\text{g}/\text{m}^3$ ('13)
행정	재정자립도 88.8%('13), 1인당 조세부담액 7,449 천원('11)

21세기 커다란 변화의 동인으로서 ICT의 잠재력은 경제성장의 동력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최근 휴대폰, MP3 플레이어와 같은 모바일기기에 멀티미디어 기능 융합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컨버전스(convergence)가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다. 나아가 인간, 사물, 공간영역에까지 디지털 컨버전스가 확대되고 사물-사물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창조경제가 가능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빅데이터 서비스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융합되어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서울시와 KT는 공동으로 NIA의 빅데이터 시범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GPS와 같은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심야버스 노선 정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노력은 Big Data 활용 공공사업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심야 경제 활동인구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의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빅데이터 분야 R&D 및 시범서비스, 전문 인력양성, 인프라 및 활성화 여건 조성 등 진흥정책,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포함하는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성과는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화를 목표로 시장-소비(수요자)-공급(사업자) 간 교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류의 장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면서 제도적인 정비와 아이디어의 발굴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빅 데이터와 공공 정책

전승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swjeon@lgeri.com



1. 빅 데이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

산출되는 데이터의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면서 빅 데이터는 IT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뜨거운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일 2.5 엑사바이트(Exabytes)의 엄청난 데이터가 새롭게 생성되고 있으며, 그 산출 속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의 데이터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들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동통신 역시 새로운 데이터 창출의 원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¹⁾

따라서 많은 리서치 및 컨설팅 기업들은 폭증하는 데이터의 규모와 잠재력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IT 전문 리서치 기관 가트너(Gartner)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빅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라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는 빅 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의료, 공공행정, 소매, 제조, 개인정보 등의 부문에서 1%의 생산성을 추가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각 분야별로 최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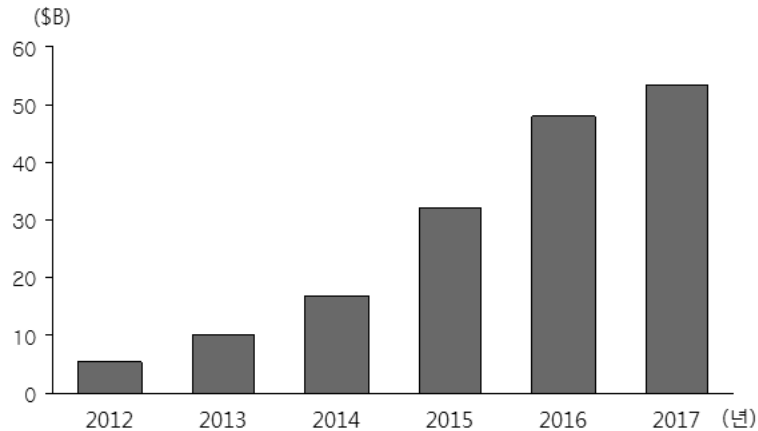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산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전) 삼성종합기술원 Future IT Lab 연구원, 현) LG경제연구원 사업전략부문 선임 컨설턴트

플랫폼 경쟁 이어 모바일 AP 경쟁 치열해지고 있다(2013), 특허전쟁시대, 특허전문기업의 화력 강해지고 있다(2012), 빅 데이터에 대한 기대와 현실(2012), 모바일 트래픽 폭증시대 네트워크 품질의 중요성 커진다(2012)

1) "Big data: The management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Oct. 2012

소 1,000억 달러에서 최대 7,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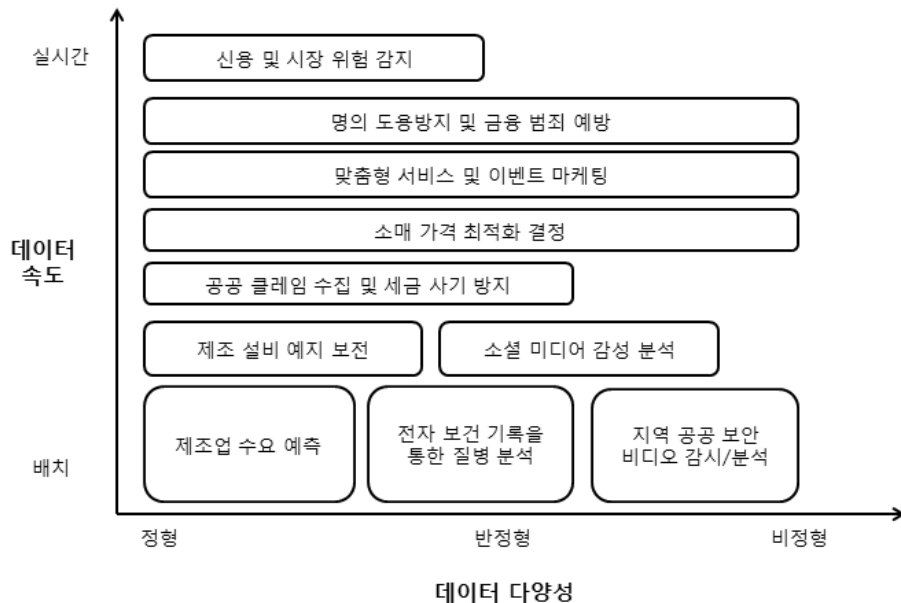
자료: Wikibon

[그림 1] 글로벌 빅 데이터 시장 규모

아직까지 각 기관마다 빅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빅 데이터가 새로운 현상 및 미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의 활용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향후 빅 데이터 시대에서는 전체 데이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성, 영상, 텍스트 등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 설명한다.

이처럼 빅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구글(Google)과 아마존(Amazon), IBM 등 여러 IT 기업을 중심으로 빅 데이터 활용 사례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빅 데이터는 여러 산업에 걸쳐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구글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엄청난 규모의 문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언어로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자동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아마존은 고객의 도서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추가로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를 추천하고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유통 기업 월마트(Walmart)는 고객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매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글로벌 패스트패션 기업 자라(Zara)는 전세계의 고객 구입 및 재고 데이터를 통하여 최신 유행 트렌드를 빠르게 감지하고 있다.

2)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Global Institute, May 2011



자료: IDC

[그림 2] 빅 데이터 분석의 활용 사례

2. 빅 데이터의 공공 활용 사례

빅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민간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러 선진국 역시 빅 데이터에 대한 연구 및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미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 IT 분야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빅 데이터의 공공 정책 활용에 가장 앞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IP)은 국립과학재단(NSF), 국방부(DOD) 등 6개 연방정부기관과 함께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를 구성하여 빅 데이터의 기술 연구 및 활용 전략의 수립에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다. 또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각 정부 기관들이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고 이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식 창출 및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사기 행위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범죄 네트워크 발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사기 감시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

하여 탈세 및 사기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세금 누락 및 불필요한 세금 환급 절감을 통하여 연간 3,45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미국 국립 의료원(NIH)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약사와 사용자간의 유기적인 상호 소통을 지원하는 필박스(Pillbox) 서비스를 통하여 수천 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유행하는 질병의 발생 장소 및 전염 속도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하고 있다.³⁾

특히 미국 본토를 강타한 9.11 테러 이후 애국법이 제정되는 등 철저한 사회 안보가 강조되면서 빅 데이터는 각종 치안 유지 및 보안 활동에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뉴욕 경찰국(NYPD)이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범죄정보센터는 IBM의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 기록과 판결문, 체포 기록 등 수백 만 건의 데이터를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세계 각지의 소속 인원들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국의 정세 변화 및 테러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Digital Reasoning, Recorded Future, Palantir Technologies 등 여러 데이터 분석 기업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하여 빅 데이터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빅 데이터의 활용에 적극적인 싱가포르 정부 역시 2004년부터 빅 데이터 기반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위험을 평가하고 다양한 정세 변화를 탐지하는 국가위험관리시스템(Risk Assessment Horizon Scanning)을 운영하고 있다.

3. 빅 데이터를 둘러싼 논란

1) 빅 데이터, 또 하나의 IT 거품일까?

빅 데이터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뜨겁게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 데이터의 개념은 아직 모호한 수준이다. 특히 빅 데이터가 단지 거대한 데이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시스템, 나아가서는 활용 전략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빅 데이터가 기존의 IT 기술에 비해 어떻게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한편으로는 빅 데이터가 결국 CRM, ERP, 웹서비스와 같이 잠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IT 유행어(Buzzword)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빅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는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Hadoop과 NoSQL 등 주요 기술 및 시스템에 주로 국한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통상적인 데이터 분석이 빅 데이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는 등, 빅 데이터에

3) “빅 데이터 글로벌 10대 성공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04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접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IT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생산성 패러독스(Productivity paradox)의 주장이 제기된 이래 IT의 성과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꾸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빅 데이터 역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성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빅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활용이 아직 일천한 가운데, 오픈 소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 자원의 빠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빅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시간과 직/간접 비용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부담이 큰 투자이다. 그러므로 가트너가 빅 데이터에 투자한 기업의 85% 이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빅 데이터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지고 있다.

2) 빅 데이터, 보안을 위협하다

오늘날 빅 데이터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우려는 바로 민감한 데이터의 누출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보안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사적 정보들이 손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상 전반에 걸쳐 인터넷의 사용이 확산되고 해킹 등 악의적인 기술이 이를 저지하는 보안 기술보다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중요한 데이터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빅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이전에도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기업과 정부의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활동은 그 의도를 떠나 대중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각시키면서 큰 반발과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 구글이 이메일, 지도, 동영상 등 60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10억 명의 개인정보를 모두 통합해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통합관리를 실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애플(Apple)은 아이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미국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또한 사진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이름을 태그하는 얼굴 인식 서비스를 수행하던 페이스북(Facebook)은 유럽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유럽 지역의 서비스를 제한하고 이미 수집한 사용자들의 얼굴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소동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이 2007년

부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9개 기업의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프리즘(Prism)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특히 국가안보국은 주요 국가의 대사관을 감청하여 기밀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도 드러나 이러한 빅 브라더 논란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빅 데이터 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많은 전문가들은 거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현상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IT 매거진 와이어드(Wired)의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은 수많은 데이터간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모델 없이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야기할 수 있는 편향적 오류를 낮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 및 정부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평가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빅 데이터 분석이 모든 현상을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경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근본적으로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는 현재 및 미래와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데이터의 출처에 따른 편향성 및 정보 부정확성, 혹은 데이터 분석이 사실을 과장 혹은 축소 해석할 위험 등 다양한 통계적 오류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발발한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유수 투자은행들은 IT 시스템에 10년 간 수백 억 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또한 오늘날 빅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시 실제보다 그 성과가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물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다양한 사실과 인과 관계를 발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의 페비오 라저스 교수는 2010년 미국 연방하원의원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선거구에서 트위터에 기반한 후보 예측이 93%의 적중률을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⁴⁾ 그러나 비정형 데이터의 출처 및 종류와 특성이 각기 천차만별이므로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고 실제 결과의 가치도 분석의 노력에 비해

4) "How Twitter can help predict an election", Washington Post, Aug. 2013

크지 않다는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소셜 네트워크는 도시의 젊은 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데이터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을 더욱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트렌드와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자칫 잘못된 예측을 하게 될 위험도 클 수 있다.

4. 빅 데이터의 공공 정책 활용 전략

1) 철저한 빅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실행 방안 마련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빅 데이터 전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분석이라 하더라도 각 기업 및 정부의 데이터 활용 목적과 주요 대상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와 해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정책은 기업의 경영 전략과 달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각각의 정책마다 필요한 빅 데이터의 특성 및 활용에 따른 효과는 매우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뚜렷한 방향성이 결여된 빅 데이터의 도입은 의도와 달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과도한 투자로 인하여 정책 추진 상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각 정책에 따른 빅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해당 정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의 목적과 이를 통한 기대 효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및 기술의 도입, 분석 결과의 활용과 가치 창출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전략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빅 데이터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동시에, 데이터 분석 결과 적용의 한계와 그 대안에 대한 고려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데이터의 질적 수준 강화 노력

충분한 규모의 데이터가 분석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사실이나, 데이터의 절대적 규모만이 기대한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필수 요건은 아니다. 거대한 양의 데이터와 이를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데이터 자체의 질적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분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뿐 자칫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에 실패할 수도 높다. 따라서 수집한 데이터가 정확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석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등 데이터의

질적 수준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이 가치 있는 지식과 통찰력 제공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차례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유명 인사로 떠오른 데이터 과학자 네이트 실버 역시 데이터의 규모보다는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수집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아무리 IT 기술이 발전해도 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판별하는 것은 결국 유능한 인재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조직의 전문성과 창의력이 빅 데이터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 빅 데이터의 효용과 안전의 균형 유지

마지막으로 빅 데이터의 기회 및 잠재력과 더불어 향후 급격히 확산될 보안 사고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빅 데이터의 누출과 감시 등 보안과 관련된 문제는 평소에 쉽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빅 데이터의 장점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이버 테러 및 기업의 고객 정보 유출, 그리고 시스템의 복잡화 및 과부하에 따른 네트워크 마비 사태 등은 빅 데이터 시대에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게다가 잘못된 빅 데이터 활용은 정부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논란과 거부감을 확대시킬 위험이 크다. 정부가 개인의 세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점은 빅 데이터 활용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데이터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악용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발 등 더욱 큰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빅 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정보 수집 및 공개적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빅 브라더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 및 공공의 정보가 사회적 합의 없이 유출되거나 수집될 경우에는 견잡을 수 없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효용과 안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빅 데이터 정책 수립 및 추진 노력이 요구된다. 데이터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촘촘한 구축은 물론이고 데이터 활용 실태 점검과 가이드라인의 마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지속적인 보안 강화의 노력만이 빅 데이터로 촉발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 경제 성장 전략과 여성 일자리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kimth@kwdimail.re.kr



1. 최근 경제상황과 여성일자리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재정건전성과 사회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7.95%이었던 OECD 평균 실업률이 2014년에도 7.97%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OECD는 회원국에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실업률은 양호하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성 등 잠재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했다.¹⁾

여성인력양성과 활용은 경제성장을 제고, 빈곤층 감소, 기업혁신과 성과 제고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 경제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박사, 전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전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여성일자리협의회 위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이사.
-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2010~12), 성별 임금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2012),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2010), 일·가정양립실태조사(2011~1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산업별 기준율 산정 방식 개발(2010).

1) OECD(2003),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 Country Notes: Korea, p. 1.

활동참가는 경제성장과 복지를 선순환 시키는 필수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²⁾ 즉, 주요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여성인력의 활용률이 증가하면 노동력부족 해소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져와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복지서비스 확충을 가능하게 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다시 증가시키는 선순환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주요 선진국은 그 동안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 기준 아이슬란드 여성고용률은 78.5%,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각각 73.8%, 73.6%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고용률도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국가에 속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 인력활용률 제고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 등 잠재인력의 낮은 활용은 고용차별,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일 가정양립의 어려움과 같은 노동시장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및 경제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함께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는 구조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8.6%이었던 것이 1990년대 6.7%, 2000년대 4.4%로 장기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다.³⁾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창출규모를 나타내는 고용탄력성(total employment elasticity) 즉, 1% 경제성장률에 대한 고용증가율을 보면, 1980년대 0.33에서 2000년대 초반과 후반에는 각각 0.29, 0.21로 하락하였다.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하면 남성과 여성취업자 수가 각각 0.27%, 0.41%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남녀 각각 0.29%, 0.30% 그리고 후반에는 0.21%, 0.19%만이 증가하였다. 즉, 1980~9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여성의 일자리창출 규모가 남성보다 훨씬 많았으나 최근에는 남녀가 비슷해짐과 동시에 남녀 모두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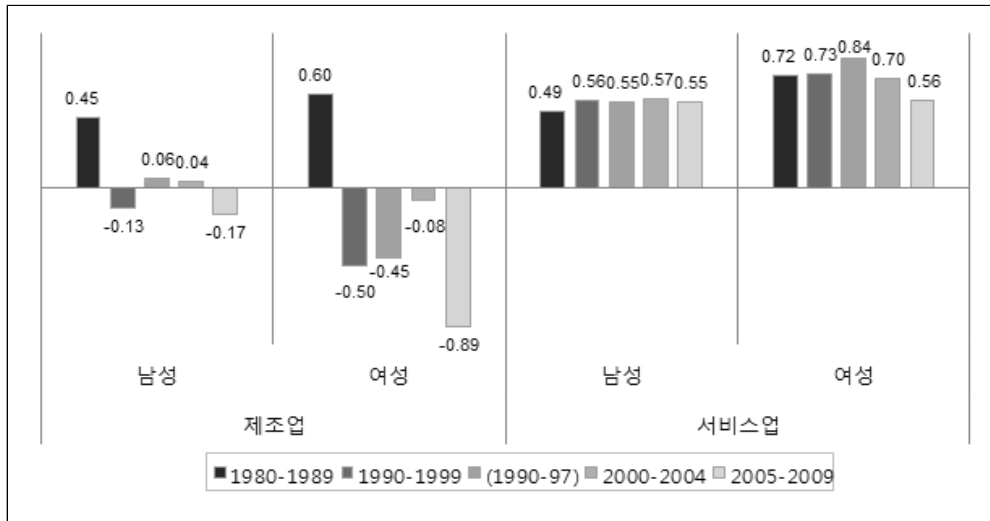
업종별로 보면, 농업·임업·부동산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성장에 따른 남성고용 감소율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고용 감소율이 남성보다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제조업 고용탄력성을 보면, 1980년대 0.51로 상당히 높았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성별로 보면, 1980년대 여성 고용

2) Sigbjørn Johnsen(2012), OECD Observer, No 293 Q4 November 2012.

3) 2005년 기준 국내총생산(실질경제성장률)임.

탄력성은 0.60으로 남성 0.45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남녀 고용탄력성 모두 마이너스 즉, 성장에 따른 고용감소 현상을 보였다. 2000년대 접어들어도 남성 고용탄력성은 2000년대 전반에는 0.04, 후반에는 -0.17 그리고 여성도 각각 -0.08, -0.17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일자리는 감소하는 현상은 지속되었다.

(단위: 1980년 취업자=100.0)



자료: OECD.Stat,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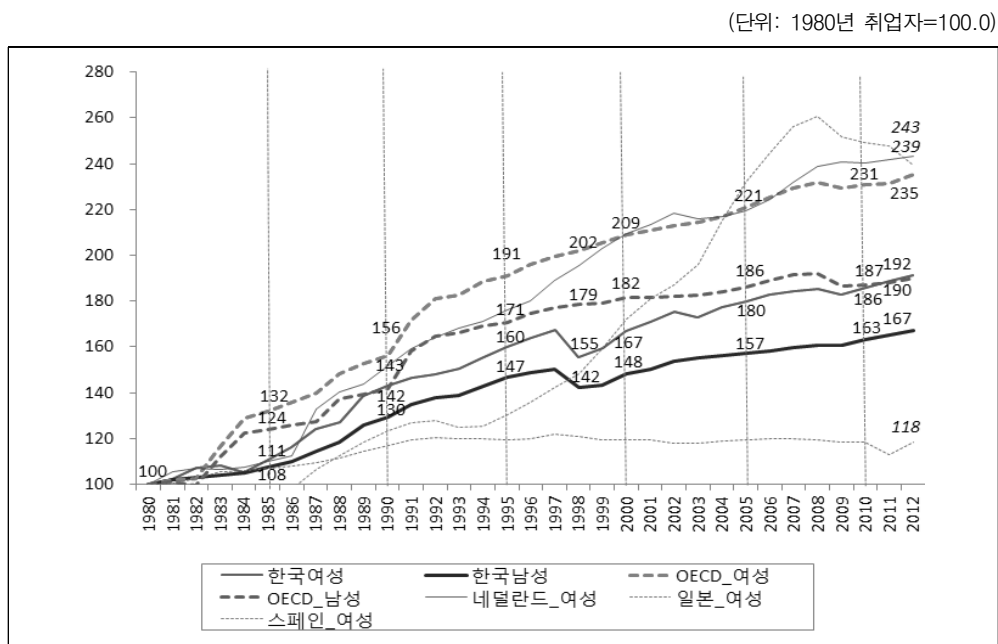
[그림 1] 기간별 업종별 남녀 고용탄력성 추이

서비스업 고용탄력성은 1980년대 0.58에서 1990년대 0.63 그리고 2000년 전반과 후반기에 각각 4.6, 3.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일자리창출능력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탄력성은 1980년대 보다 약간 더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상반기의 경우 서비스부문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하면 남성 고용증가율이 0.57%로 높아졌다. 여성 고용탄력성도 1980년대 0.72, 1990년대 0.73, 그리고 2000년대 상반기 0.70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기에는 0.56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별 성별 고용탄력성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남녀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부문의 고용탄력성도 남녀 모두 장기적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남녀격차가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

2. 여성일자리 추이와 특징

우리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남녀 일자리의 변화 추이를 보면 [그림 2]와 같았다. 우리나라와 OECD 남녀취업자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 2]에서는 1980년의 남녀취업자 수를 100으로 전환시켰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1980년 이후 가장 취업자 증가폭이 큰 집단은 OECD 여성취업자였고, 그 다음은 OECD 남성과 우리나라 여성으로 비슷하였다.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낮은 집단은 우리나라 남성취업자이었다.



자료: OECD.Stat, 통계청 KOSIS.

[그림 2] 우리나라와 OECD 평균 남녀취업자 변화 추이(15~64세)

우리나라 취업자 수 변화를 기간별로 보면 1980년대 여성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3.7%(남성 2.6%)이었으나, 1990년 이후부터 크게 둔화되어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각각 1.2%(1.1%), 1.0%(0.9%)이었다. 이에 비해 OECD 회원국의 여성(남성)취업자 연평균증가율은 1980년대 4.8%(3.8%), 1990년대에 3.1%(2.7%)로 우리나라와 달리 취업자 증가세가 1990년 말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OECD 회원국도 2000년대는 남녀 각각 1.0%, 0.3%로

증가율이 하락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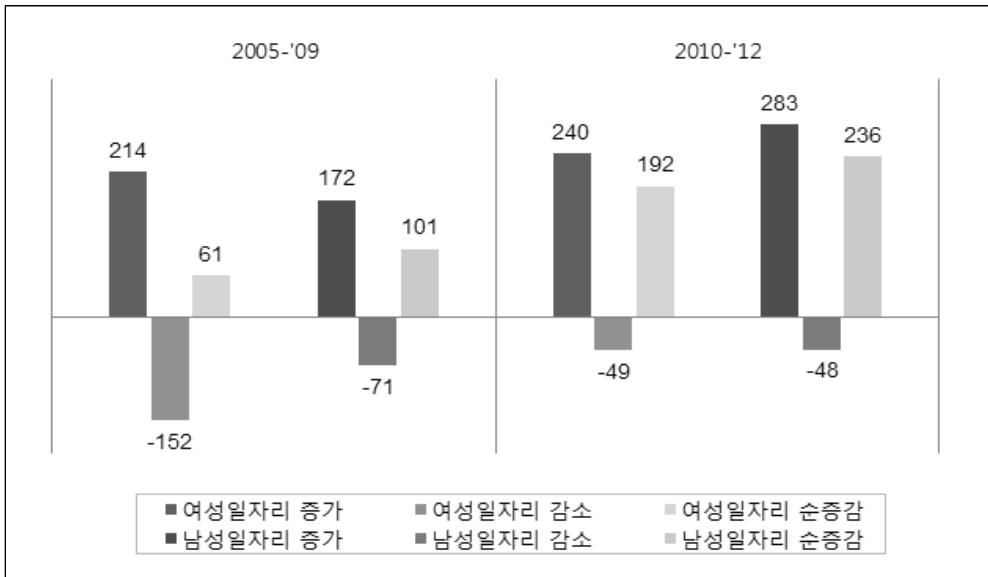
최근 남녀일자리 동향을 산업별로 보면 2005~2009년 동안에 여성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13.2%이었고, 그 다음은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11.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9%), 교육 서비스업(3.9%) 순이었다.⁵⁾ 동 기간에 여성 일자리 증가규모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 여성취업자 수가 5년 동안에 303천명, 교육 서비스업으로 175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1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7천명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2천명 증가하였다. 즉, 동 기간에 이들 5개 업종에서 증가한 여성일자리 규모는 788천명(연평균 197천명)으로, 전체 창출된 여성일자리 854천명의 92.3%에 해당하는 규모이었다. 동 기간에 창출된 남성일자리는 전체 686천명이었는데, 이들 일자리의 66.8%에 해당하는 458천개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창출되었다, 다만 여성과는 달리 남성은 운수업에서도 다수(89천개) 창출되었다.

2005~2012년 동안에 남녀취업자의 일자리창출 현황을 비교하면,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0년대 후반과는 달리 2010~2012년에는 남녀취업자의 연평균 증가규모가 훨씬 많았으나, 양 기간 모두 남성취업자 증가규모가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그림 3]). 기간 별 구분해서 보면 2000년대 후반 여성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산업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21개 산업 중에서 14개이었고, 동 산업에서 창출한 여성일자리 수는 연평균 214천명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일자리가 감소한 7개 산업에서 152천개의 일자리가 소멸되어, 여성취업자 순증가 규모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간 61천개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 일자리는 15개 업종에서 5년 동안 연평균 172천개가 창출되고 5개 업종에서 71천개 일자리가 소멸되어, 남성 취업자 증가규모는 동 기간에 101천명이 증가하였다. 즉, 동 기간에 창출된 일자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평균 42천명 더 많은 반면에 소멸된 일자리는 남성보다 81천명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남성취업자가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였다.

4) 우리나라 (15~64세) 여성(남성)취업자 수는 1980년 4,965천명(8,003천명), 1990년 7,102천명(11,462천명), 2000년 8,293천명(11,863천명) 그리고 2012년 9,509천명(13,388천명)임. OECD.Stat(2013년. 7월).

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도 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3.6%로 다소 높았으나, 여성취업자 수가 2009년 기준 15천명에 불과하였음.

(단위: 천명)



주: 여성취업자가 증가(감소)한 산업을 기준으로 여성일자리 증가(감소) 규모를 산정함.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기간별 산업별 연평균 남녀취업자 증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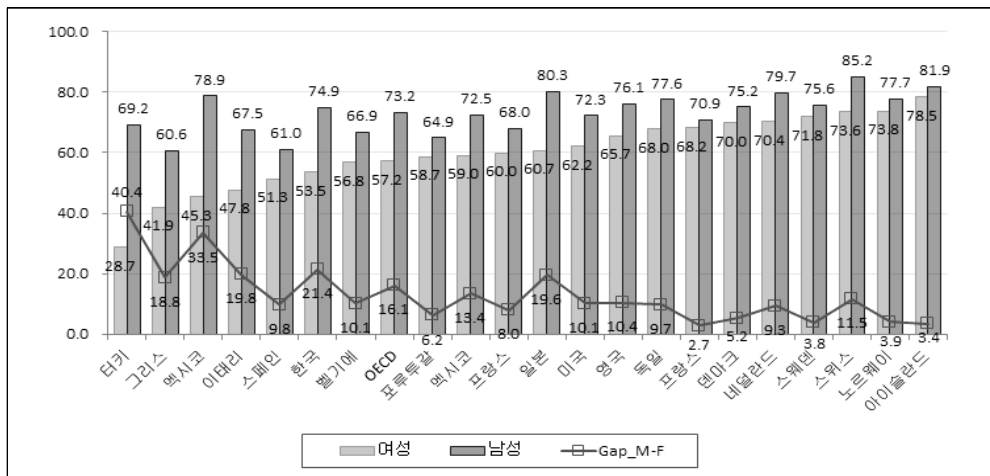
2010~2012년 성별 일자리 현황을 보면 14개 업종에서 여성취업자는 연평균 240천명 증가한 반면에 7개 업종에서는 49천명 감소하여, 순수하게 증가한 규모는 192천명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은 13개 업종에서 연평균 283천명 증가, 8개 업종에서 48천명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36천명이 순수하게 증가하였다. 즉, 2010~2012년에는 남성일자리 창출규모가 여성보다 더 많은 반면에 일자리 소멸규모는 여성과 비슷하여, 남성취업자 증가규모가 여성보다 더 많았다.

3. 여성 고용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15~64세) 여성고용률을 보면 1990년대 후반 기에는 1998년 경제위기 영향으로 여성고용률이 1995년 50.5%에서 2000년 50.0%로 약간 하락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여성고용률이 다소 증가하여 2005년 52.5%이었으나, 후반에는 정체상태를 보여 2010년 52.6%에 그쳤다. 2010년 이후에는 약간 상승하여 2011년 53.1%, 2012년 53.5%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터키 그리고 일부 남부 유럽국가들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여성고용률이 상당히 낮은 집단에 속한다([그림 4]).

여성고용의 또 다른 특징인 성별 고용불평등을 나타내는 남녀고용률 격차를 보면, 2012년 기준 터키 40.4%p, 멕시코 33.5%p에 이어서 우리나라는 21.4%p로 OECD 회원국에서 세 번째로 격차가 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유연근무제도의 도입률이 상당히 낮은 국가에 속한다. 즉,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은 여성고용률은 65~75% 수준인데 비해 FTE 고용률은 27~45%로, 여성취업자의 상당수가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에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포르투갈, 터키, 그리스 등은 여성의 공식고용률과 전일제 환산 고용률 격차가 11%p 미만으로 여성취업자 중 시간제 비율이 상당히 낮고, 이로 인해 여성고용률도 낮았다.

(단위: %, %p)



자료: OECD(2003),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그림 4] 성별 남녀고용률 및 고용률 격차(2012년)

6) '전일제 환산 고용률(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rate; FTE 고용률)'은 '기존 풀타임취업자'와 함께 '단시간취업자는 풀타임취업자로 환산한 취업자'를 합산한 취업자로 산정한 고용률임.

4.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2010년대 후반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되며 노동력 부족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여성인력활용 제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과한 국가전략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여성취업난의 지속,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저해하는 경직적인 근로제도 및 열악한 일 가정양립 기반 등이 지속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성고용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정부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녹색성장전략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전략 등과 같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요소투입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발전전략에서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시장 선도형 창조경제로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 중심축을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여상시간제, 일 가정양립으로 설정하고, 민관협차소통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고용률을 2012년 53.5%(여성취업자: 950만명)에서 2017년 61.9%(1,116만명)으로 8.4%p(164만명) 증가시키고자 한다.⁷⁾ 이를 위해 여성일자리를 시간제 92만개(연간 184천개), 풀타임 73만개(146천개) 창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성일자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제고가 필수불가결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5~2009년 여성취업자 증가는 연평균 61천명인데 비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시기인 2010~2012년에는 192천명에 달했다. 따라서 여성고용률 61.9% 달성을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시급하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전략은 과학기술과 ICT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디자인, 예술, 광고, 관광, 건축, 패션, 콘텐츠 등과 같은 창조산업육성은 여성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여성 인력양성 및 활용 현황 파악과 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여성일자리 실태조사와 이에 기초한 정책과제 발굴이 시급하고, 창의적이고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여성인재육성, 여성 창업실패자 또는 재창업 희망자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구축 등의 사업추진도 필요하다.

7) 고용노동부(2013),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운영보고.

두 번째 장시간근로 및 교대제 등 근무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직무분할 및 신규 직무개발로 인한 시간제 확충으로 여성일 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양질의 시간제 확충을 위해서는 동 사업을 개별 기업별로 신청하는 방식에서 업종별 사업체단체 혹은 직무유형별 직능단체를 통해서 신청, 승인하는 방식 등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시간제근로자의 확대를 위해서 일본의 정사원 전환제와 같이 시간제와 풀타임근로의 전환,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사유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시간제에 대한 차별방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 출산 및 육아기 여성취업자의 경력단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고용률 제고와 함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관리직 진출 제고 등을 통한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20대 후반 여성 고용률 68.0%(2012년)을 그 이후 연령까지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정책의 성과목표를 제도 사용자 수에서 고용유지율로 전환시키고, 모성보호금부의 임금대체를 제고 등 모성보호제도의 강화,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 가정양립, 유연근무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3), 창조경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창조경제 종합연구시리즈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3), 창조경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 창조경제 종합연구시리즈 2.
- 고용노동부(2013),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운영보고.
- 김태홍 외(2010),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1)-녹색성장과 여성인력양성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 외(2011),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2)-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 외(2012),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3)-여성고용구조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Sigbjørn Johnsen(2012), OECD Observer, No 293 Q4 November 2012.
- OECD(2013),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 OECD(2013),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 Country Notes: Korea.
- OECD(2013), Gender Differences in self-employment rates in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3.

SEOUL ECONOMIC BULLETIN

인포그래픽스

■ 서울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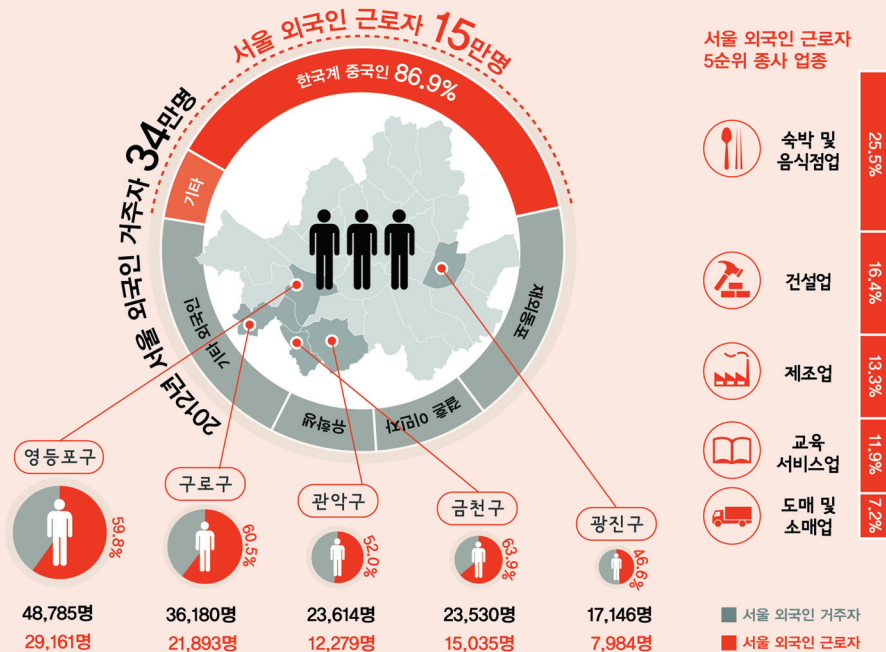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서울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운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 외국인 근로자는 15만명으로 5년간 1.4배 증가
한국계 중국인이 86.9%



주) 외국인 거주자: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5순위 종사 산업은 2012 외국인고용조사(통계청) 자료 활용.
5순위 종사자 산업을 제외한 정보는 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자료 활용

자료: 2012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현황(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2012년 외국인근로자(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통계청)

서울 외국인 근로자는 15만명으로 5년간 1.4배 증가 한국계 중국인이 86.9%

- 서울 외국인 근로자는 15만명으로 외국인 거주자 34만명의 44.1% 차지
 - 서울 외국인 근로자는 2008년 108,140명에서 2012년 150,433명으로 5년간 1.4배, 연평균 6.8%씩 증가함
- 서울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와 외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일치
 - 서울 외국인 근로자는 2008년 108,140명에서 2012년 150,433명으로 5년간 1.4배, 연평균 6.8%씩 증가함
- 서울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인 13만명 86.9%가 한국계 중국인
 - 2순위는 미국인으로 4,161명으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2.8% 차지
- 서울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 다음으로 건설업,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순

주) 외국인 거주자: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5순위 종사 산업은 2012 외국인고용조사(통계청) 자료 활용, 5순위 종사자 산업을 제외한 정보는
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자료 활용

자료: 2012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현황(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2012년 외국인근로자(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통계청)

〈표 1〉 2012년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수 비교

(단위 : 명)

자치구	외국인 거주자	비율	외국인 근로자	비율	외국인 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
영등포구	48,785	14.3%	29,161	19.4%	59.8%
구로구	36,180	10.6%	21,893	14.6%	60.5%
관악구	23,614	6.9%	12,279	8.2%	52.0%
금천구	23,530	6.9%	15,035	10.0%	63.9%
광진구	17,146	5.0%	7,984	5.3%	46.6%
서울시	341,121	100.0%	150,433	100.0%	44.1%

자료: 2012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2012년 외국인근로자(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표 2〉 2012년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단위 : 명)

	국적	종사자 수	비율
1순위	중국(한국계중국)	130,730	86.9%
2순위	미국	4,161	2.8%
3순위	중국	3,408	2.3%
4순위	캐나다	1,381	0.9%
5순위	베트남	1,108	0.7%
기타		9,645	6.4%
합계		150,433	100.0%

자료: 2012년 외국인근로자(안전행정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표 3〉 2012년 외국인 근로자 종사 업종

(단위 : 명)

	업종	종사자 수	비율
1순위	숙박 및 음식점업	243	25.5%
2순위	건설업	156	16.4%
3순위	제조업	127	13.3%
4순위	교육 서비스업	113	11.9%
5순위	도매 및 소매업	69	7.2%
	전체 설문 인원	953	100.0%

자료: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통계청)

SEOUL ECONOMIC BULLETIN

경제동향

경제
동향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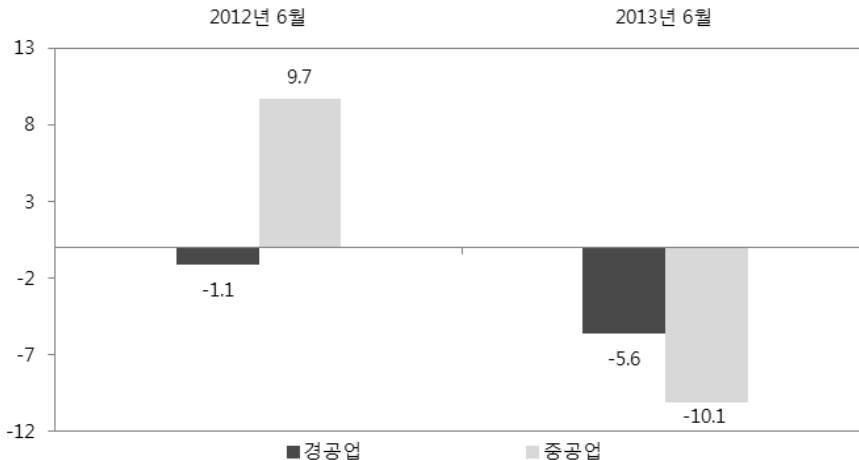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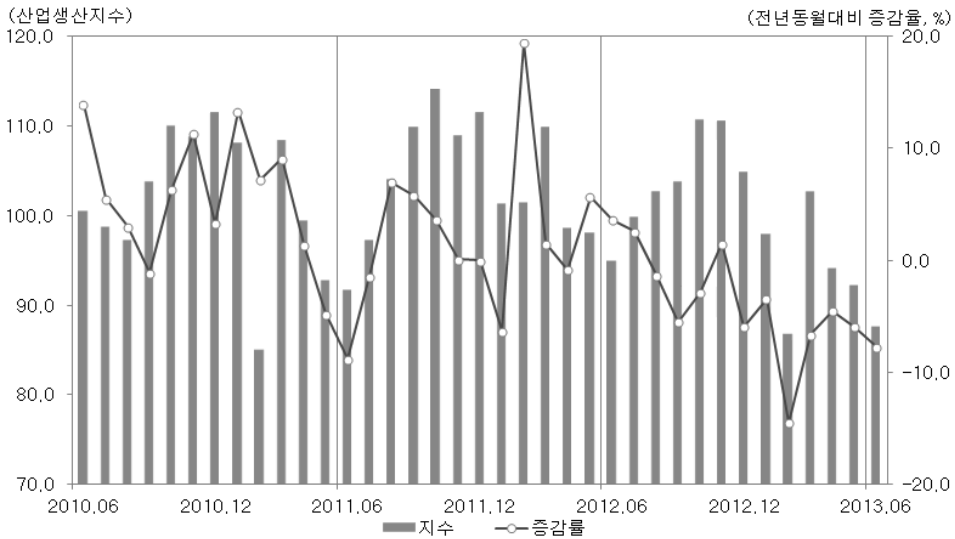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생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6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7.7로 전년동월대비 7.7% 감소 • 서울의 6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4% 감소, 0.7% 증가하여 경기하강기
소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153억원으로 전국(6조335억원)의 36.7%를 차지 • 서울의 6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 대형마트는 0.3% 감소
고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6월 취업자수는 514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6천명(0.7%)이 증가 • 서울의 6월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물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부 동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6월 주택매매가격은 강북지역 특히 용산구(-0.54%)와 노원구(-0.35%)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14% 하락 • 서울의 6월 주택전세가격 역시 강북지역 특히 강남구(0.52%)와 강서구(0.45%)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20% 상승
금 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6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5조 2,277억 원으로 전월대비 0.23% 감소, 그중 가계대출은 176조 2,881억 원으로 전월대비 0.5% 증가 • 서울의 6월 신설법인수는 1,947개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9.0% 감소 • 서울의 6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2.8% 감소
수 출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6월 수출은 4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4.3% 감소, 품목별로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6월 수입은 94.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3.5% 감소,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국가별로는 역시 중국이 1순위 차지

| 생 · 산 |

- 서울의 6월 제조업생산지수 87.7(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7.7% 감소
 - 경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6% 감소, 중공업부문은 10.1% 감소
 - 전년동월대비 의료정밀과학(38.8%), 금속가공(23.8%), 전기·가스·증기업(9.9%) 증가, 기계장비(-38.0%), 전기장비(-37.8%), 의복 및 모피(-6.7%) 각각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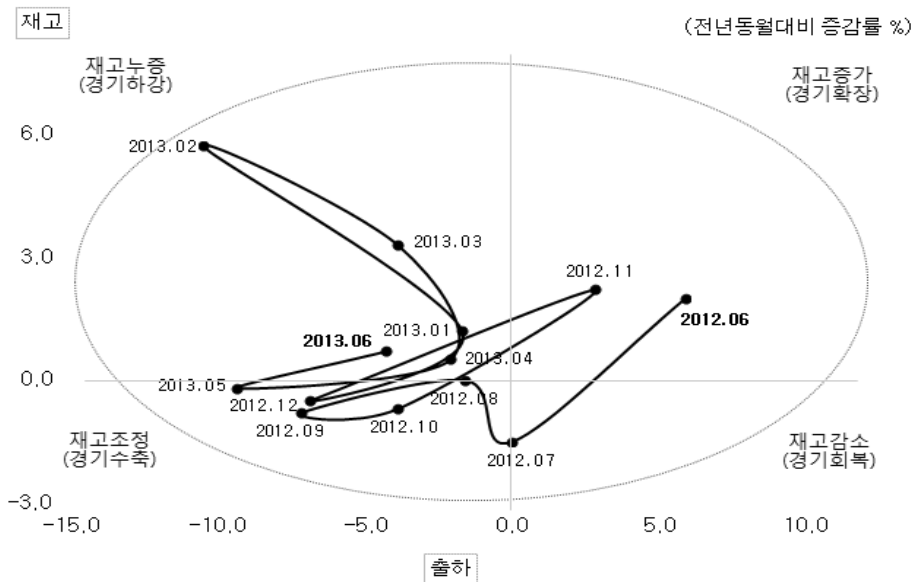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6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경기하강기
 - 서울의 6월 출하지수는 93.1(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
 - 서울의 6월 재고지수는 103.3(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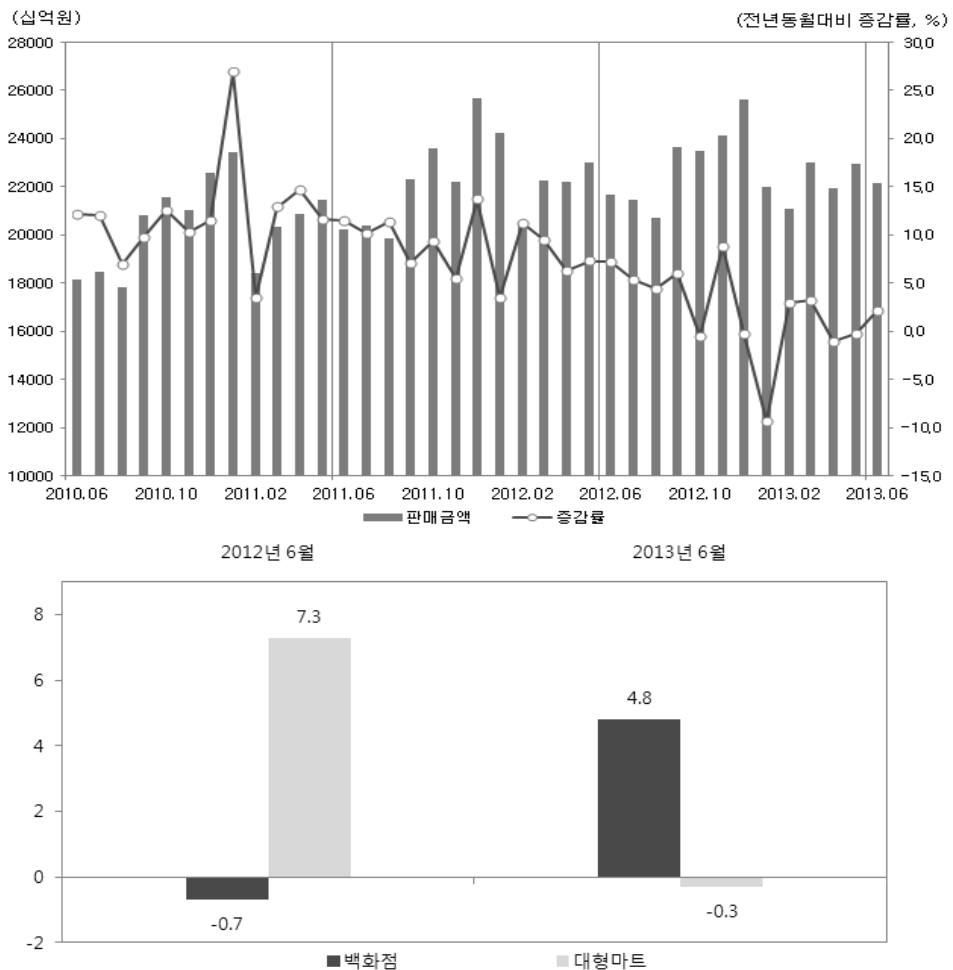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 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 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153억원으로 전국(6조335억원)의 36.7%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656억원으로 전국(2조3,333억원)의 45.7%,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1,497억원으로 전국(3조7,002억원)의 31.1%를 차지
- 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5.0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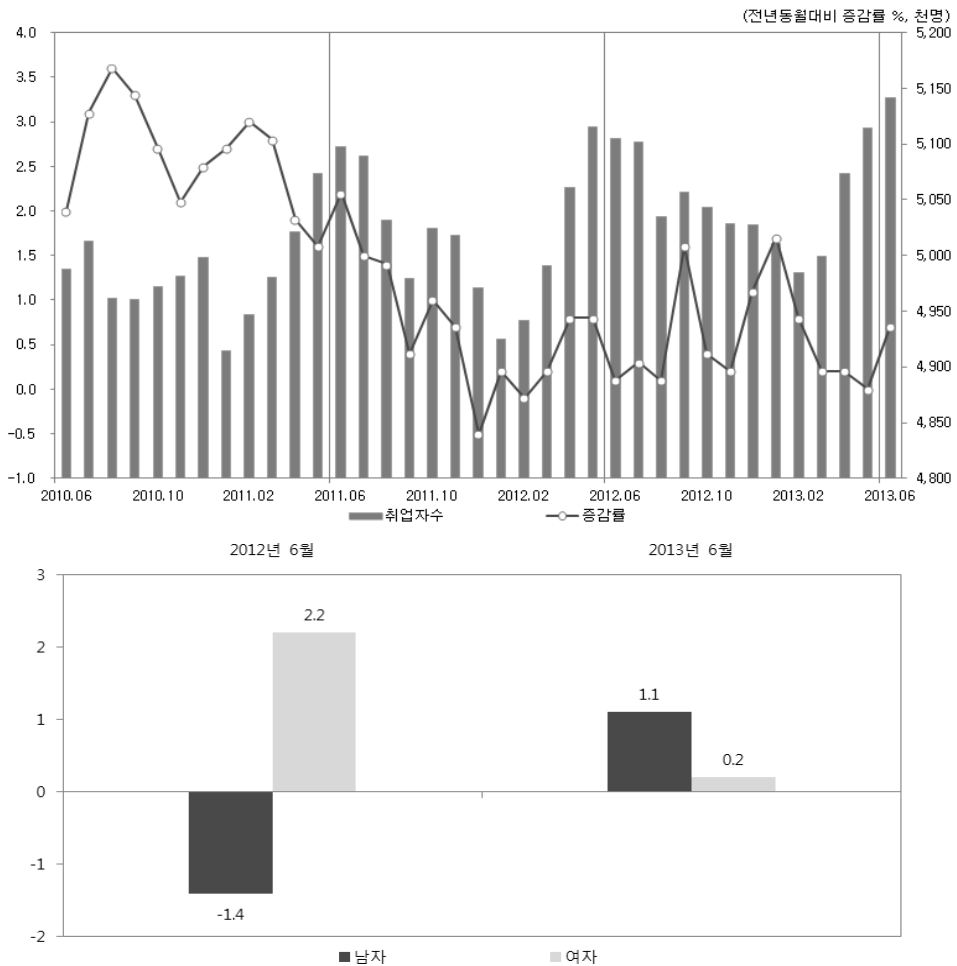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취 · 업 · 자 |

■ 서울의 6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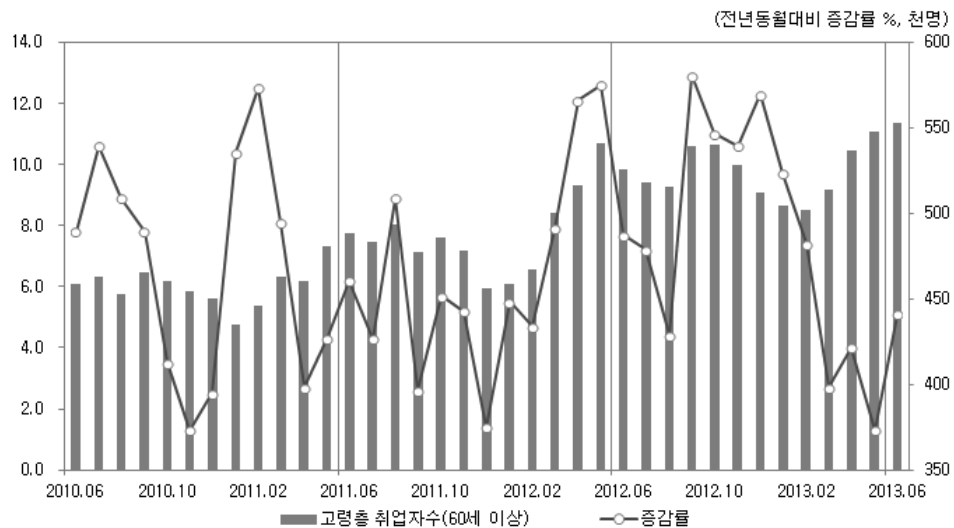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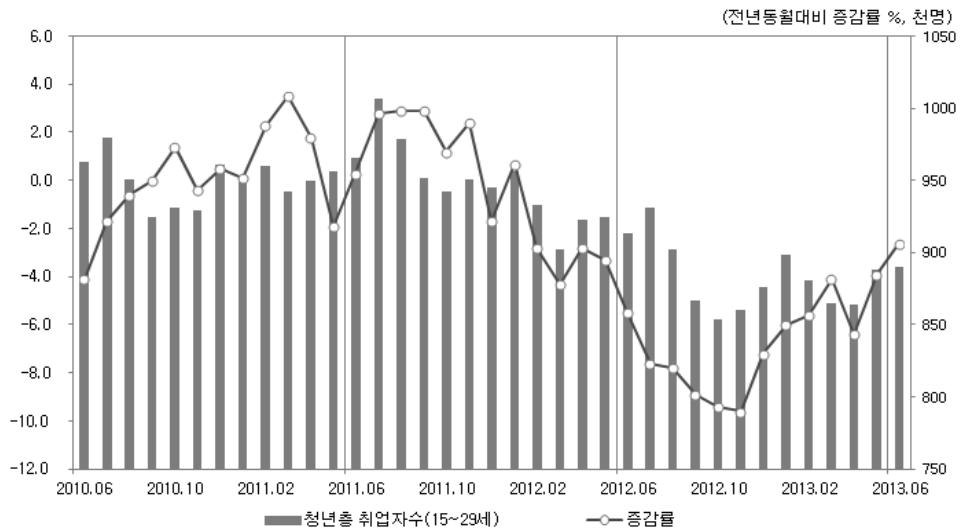
- 서울의 6월 취업자는 514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6천명(0.7%)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7만3천명, 여자는 226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만1천명(1.1%), 여자는 5천명(0.2%)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6만7천명(8.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만3천명(1.6%) 각각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6월 청년층(15세~29세) 여전히 하락,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꾸준히 증가
 - 서울의 6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하며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서울의 6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5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2013년 상반기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완화, 고령층 취업자 증가폭은 감소 추세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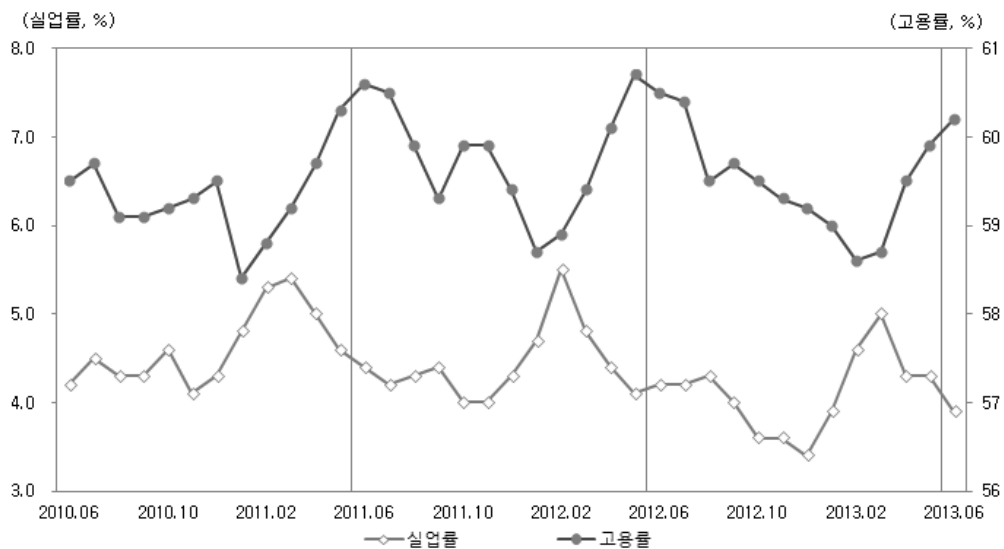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6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6월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1%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 여자는 51.1%로 0.7%p 감소
- 2013년 6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60.5%)에 비해 0.3%p 낮은 수준

■ 서울의 6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6월 실업자는 21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천명(+6.5%)이 감소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8%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 여자는 4.1%로 0.6%p 상승
- 2013년 6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1%)에 비하여 0.8%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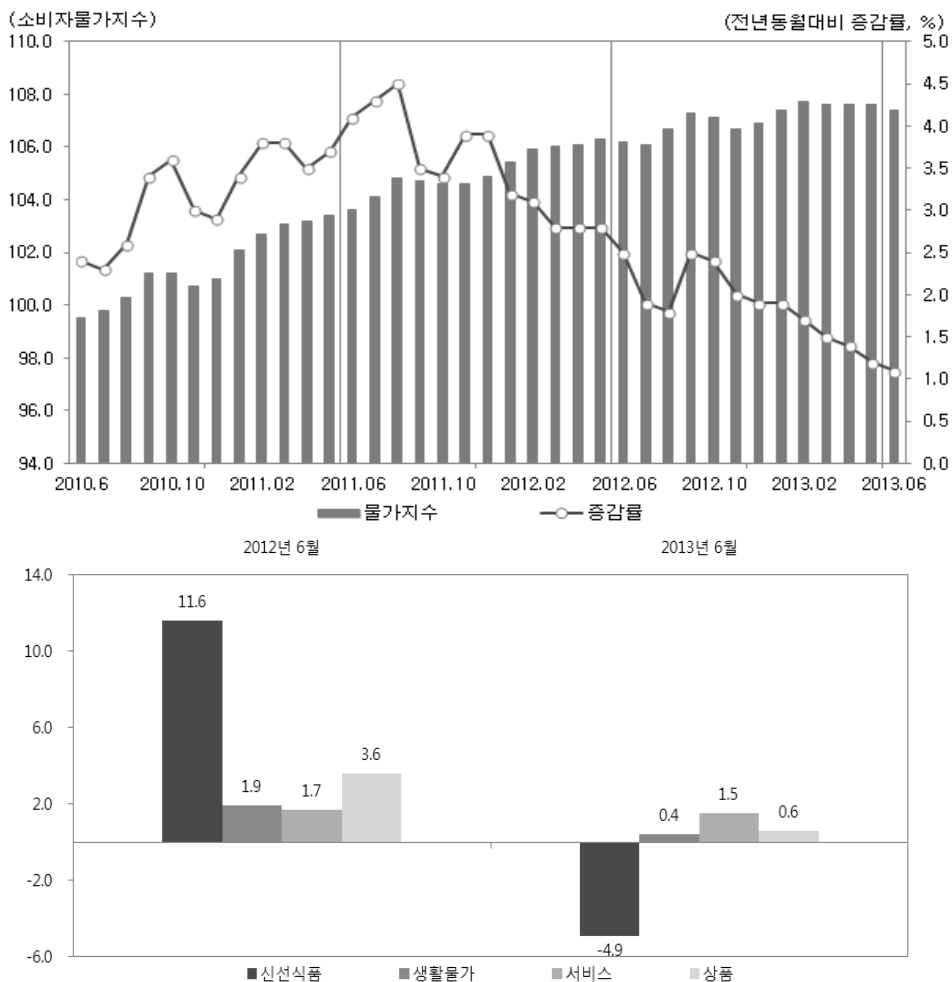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서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2013년 6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농축수산물(-4.3%), 신선식품지수(-4.9%)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공업제품(0.9%), 전기·수도·가스(6.2%), 집세를 포함한 서비스(1.5%), 생활물가지수(0.4%) 부문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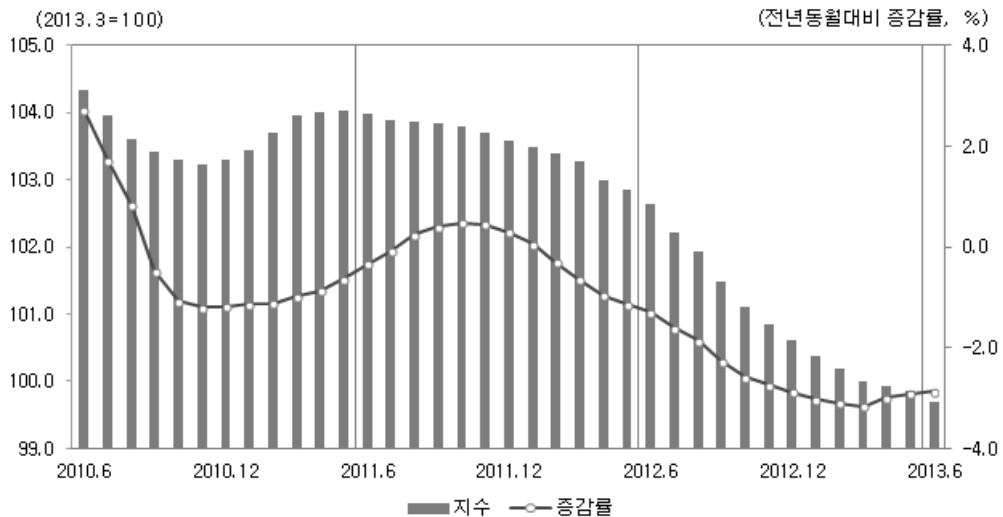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6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14% 하락
 - 강남지역(-0.12%), 강북지역(-0.17%) 등 관악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하락
 - 하락률 상위지역: 용산구(-0.54%), 노원구(-0.35%), 강남구(-0.21%), 양천구(-0.21%)
 - 단독주택(-0.01%), 연립주택(-0.09%), 아파트(-0.21%) 등 하락세 지속
- 전국의 6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4% 하락
 - 광역시(0.19%), 기타지방(0.09%) 모두 전월대비 상승, 수도권(-0.20%)은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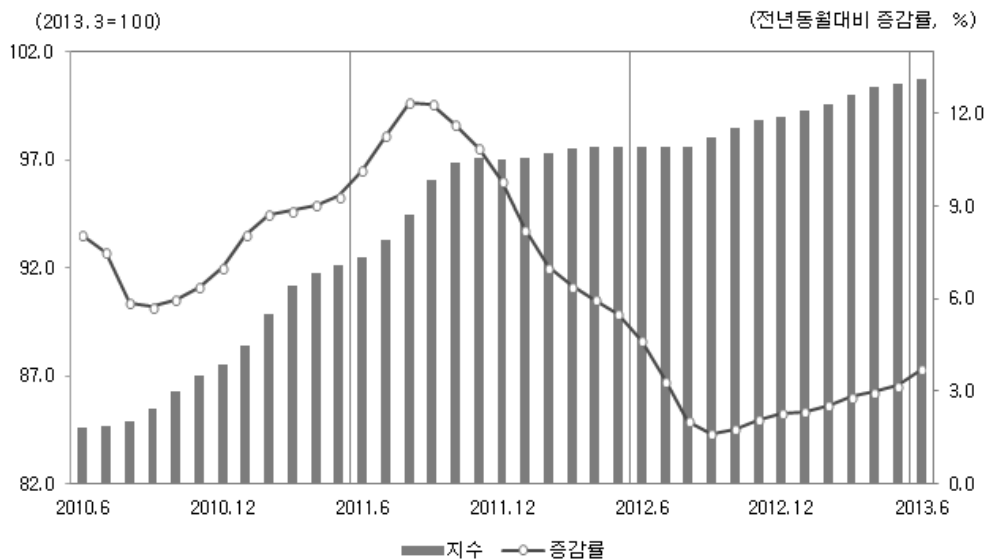
자료 : KB부동산알리지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6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
 - 평당 매매가격(평균 1,635만원)은 전월(1,640만원)대비 0.2% 하락
 - 매매거래건수(9,031건)는 전월(6,843건) 대비 32.0% 증가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6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20% 상승
 - 강남지역(0.17%), 강북지역(0.23%) 등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강남구(0.52%), 강서구(0.45%), 성동구(0.40%), 성북구(0.36%)
 - 단독주택(0.12%), 연립주택(0.15%), 아파트(0.25%) 등 상승세 지속
- 전국의 6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23% 상승
 - 광역시(0.23%), 기타지방(0.20%), 수도권(0.23%) 모두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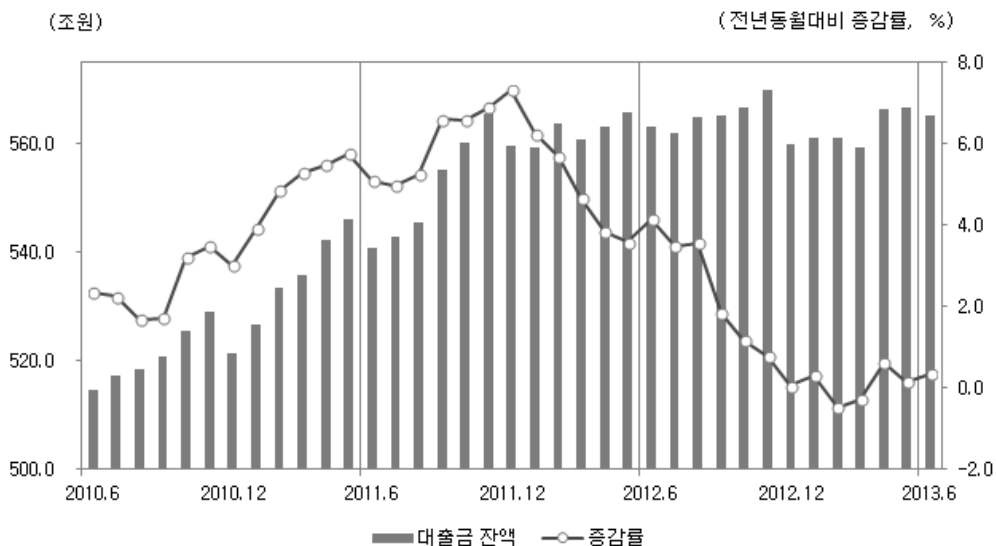
자료 : KB부동산알리지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6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
 - 평당 전세가격(평균 892만원)은 전월(889만원)대비 0.4% 증가
 - 전세거래건수(8,088)는 전월(7,688건) 대비 5.2% 증가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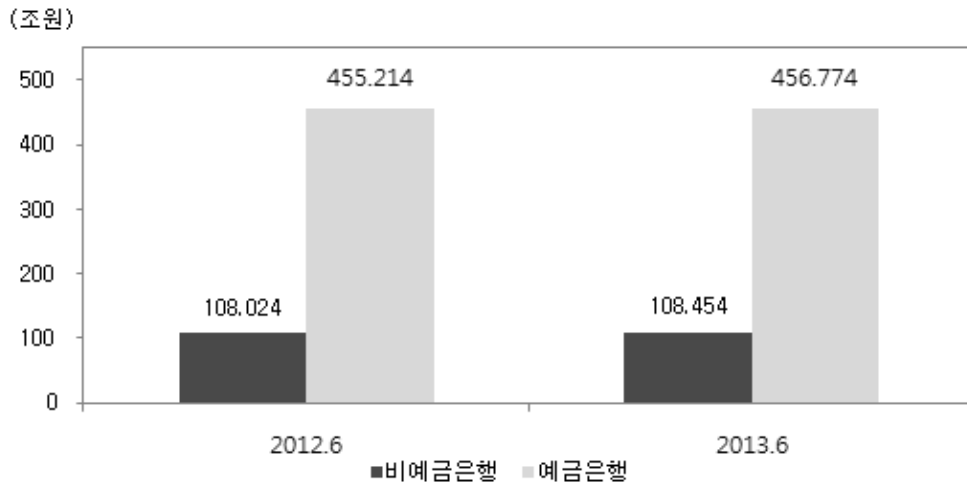
- 6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감소
 - 전체 대출금 잔액(565조 2,277억원)은 전월(566조 5,391억원)대비 0.23% 감소
 - 그 중 예금은행(456조 7,737억원)과 비예금은행(108조 4,540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3%, 0.4% 증가
- 6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1,479조 469억원)은 전월(1,471조 1,090억원)대비 0.54%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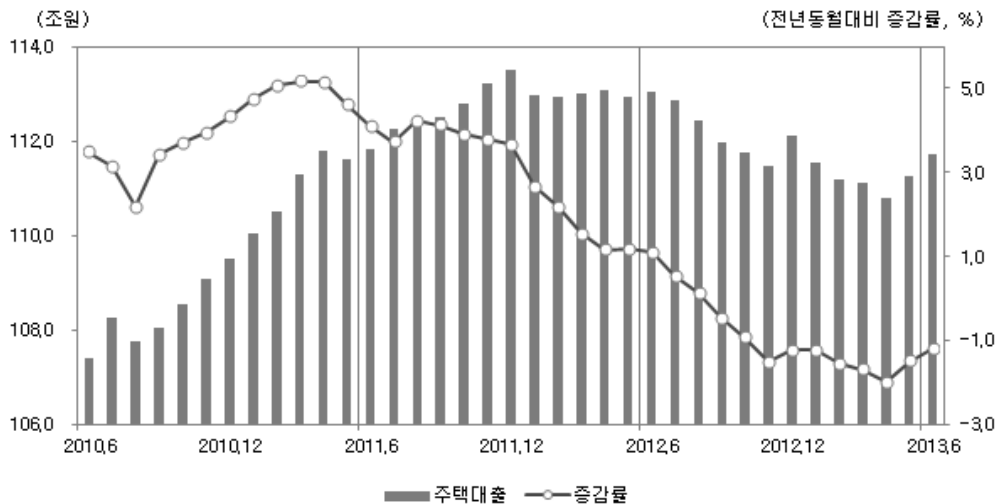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6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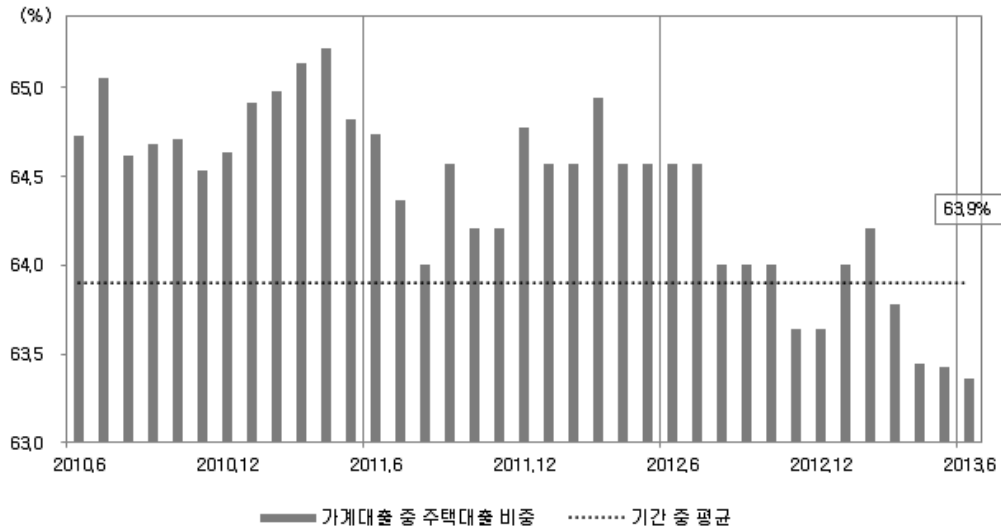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76조 2,881억원)은 전월(175조 3,908억원)대비 0.5%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11조 7,040억원)은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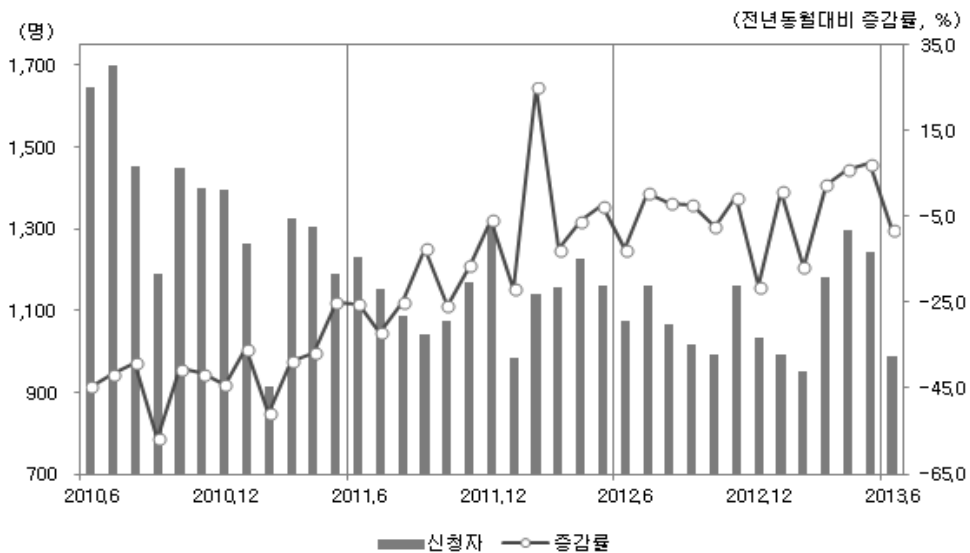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6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

- 개인파산 신청자(988명)은 전월대비 20.6% 감소, 전년동월대비 8.1%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4.8%)은 전년동월대비 38.5%p 증가, 면책 기각률(5.7%)은 전년동월대비 8.2%p 증가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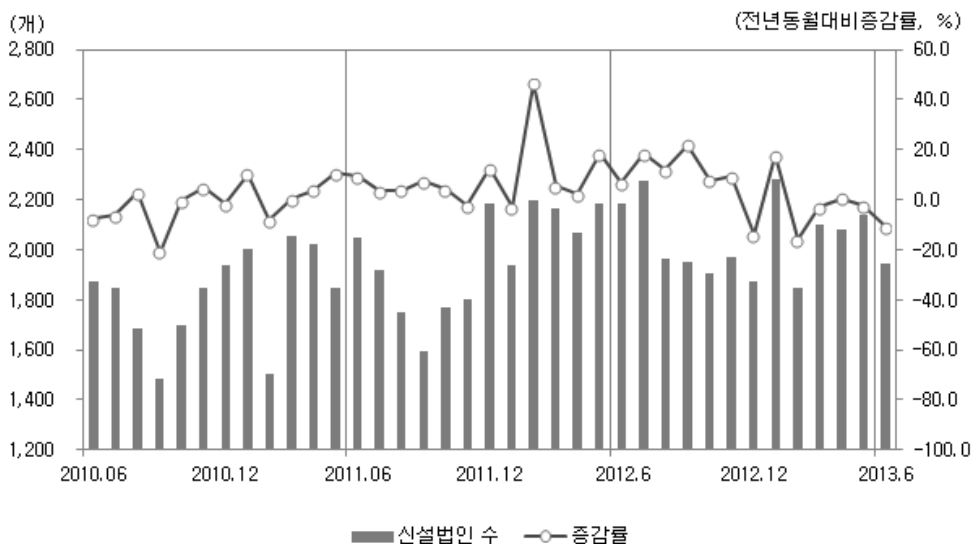
| 신 · 설 · 부 · 도 · 법 · 인 |

■ 서울의 6월 신설법인 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47개로 전월대비 9.0%(193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10.8%(235개)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7.5%(21개)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12.4%(16개), 11.8%(203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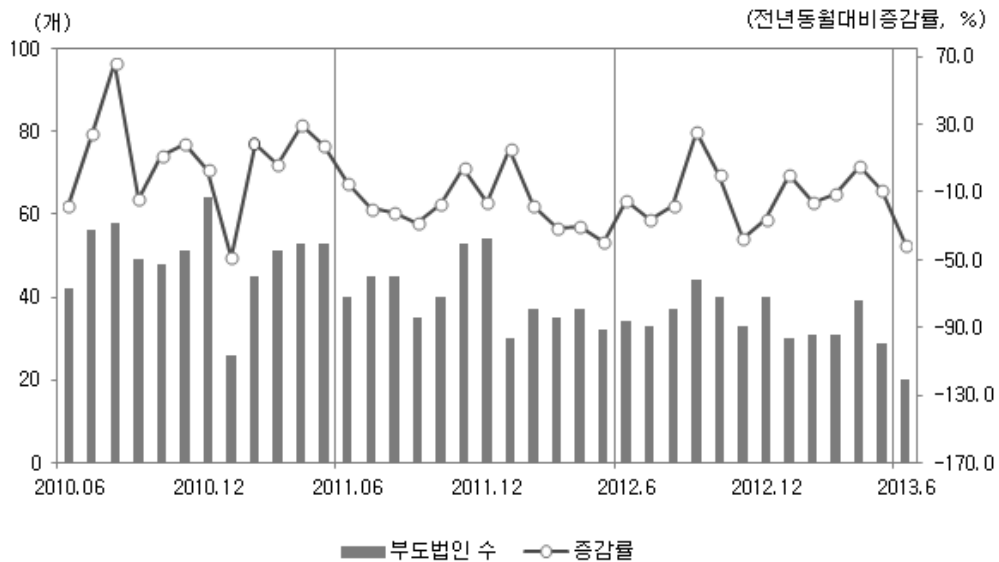
■ 서울의 6월 부도업체 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20개로 전월대비 31.0%(9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41.2%(14개) 감소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35.7%(5개) 감소, 건설 및 설비업과 제조업은 전월대비 각각 33.3%(1개), 20.0%(2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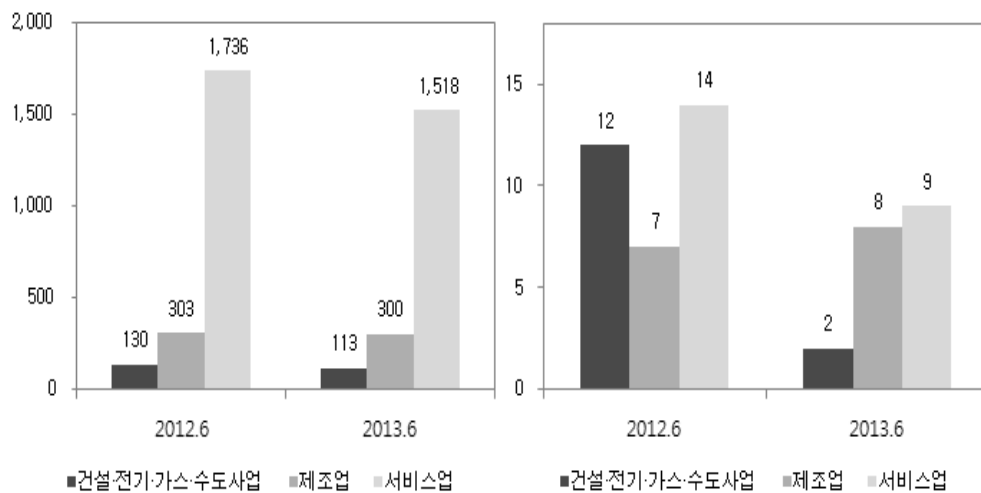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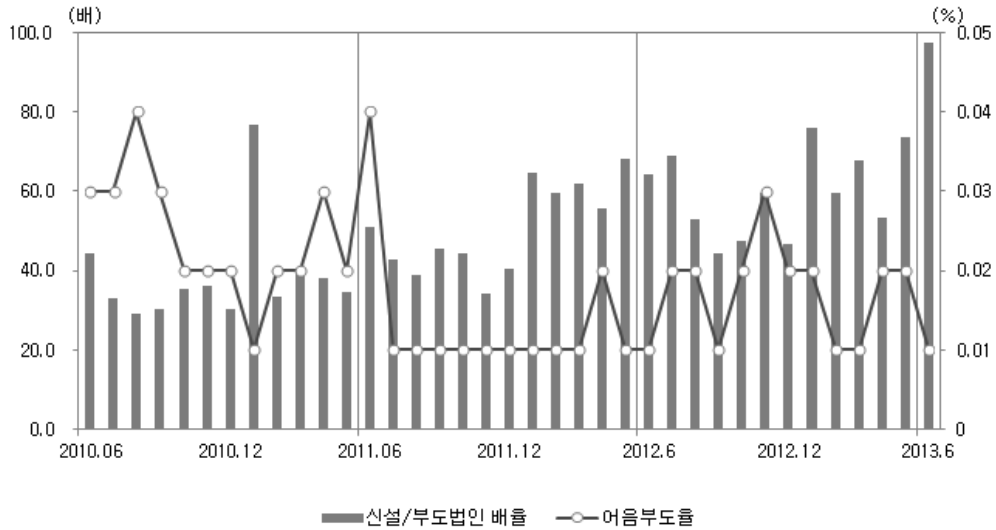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좌) 및 부도법인(우) 현황

- 6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97.4배로 전월 (73.8배)대비 증가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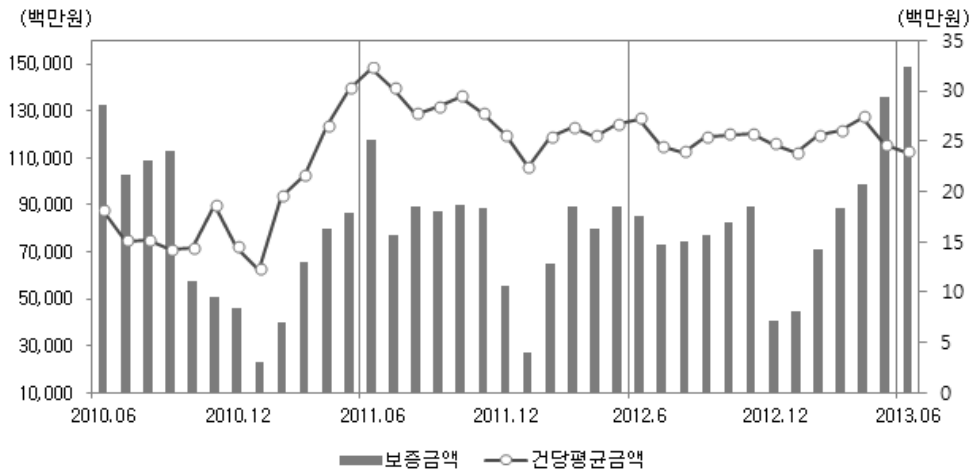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 서울의 6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148,700백만원, 6,227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9.4%, 12.6% 증가,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2.8% 감소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건수는 각각 74.2%, 98.4%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2.2% 감소

■ 서울의 6월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감소

- 6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8.1%로 전월(9.5%) 대비 1.4%p 감소한 반면, 도 · 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8.4%로 전월(38.5%) 대비 0.1%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6.6%로 전월(8.1%)대비 1.5%p 감소하였으며 도 · 소매업 종은 37.1%로 전월(36.7%)대비 0.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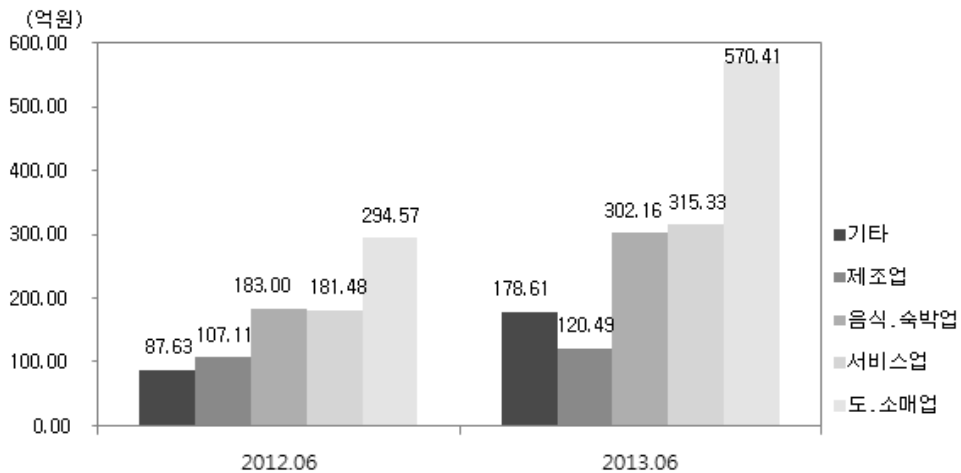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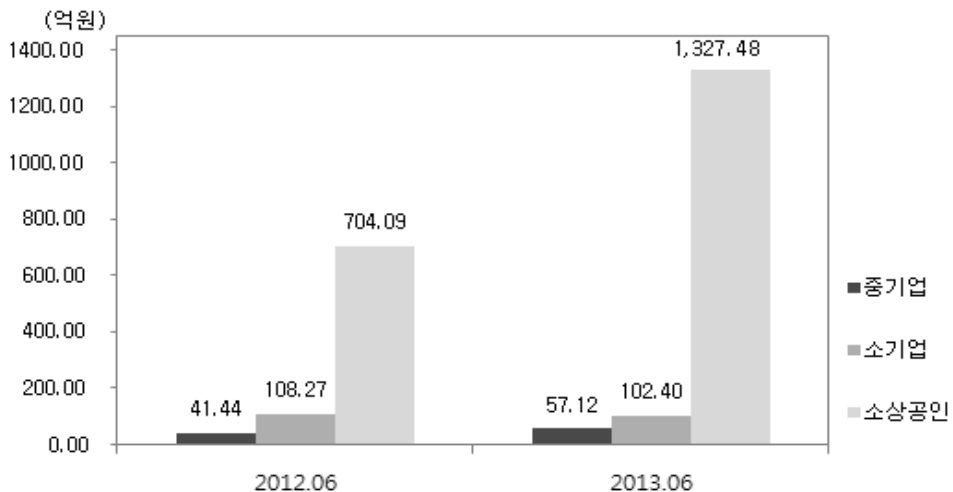
■ 서울의 6월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9.3%로 전월대비 1.5%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96.0%로 전월대비 0.4%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6.9%로 전월대비 1.1%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2.6%로 전월대비 0.7%p 감소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3.8%로 전월대비 0.4%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1.5%로 전월대비 0.3%p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보증공급금액 기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보증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 서울의 6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수출은 47.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4.3% 감소하였고 수입은 94.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3.5% 감소
- 전국의 수출은 467.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하였고 수입은 407.14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3.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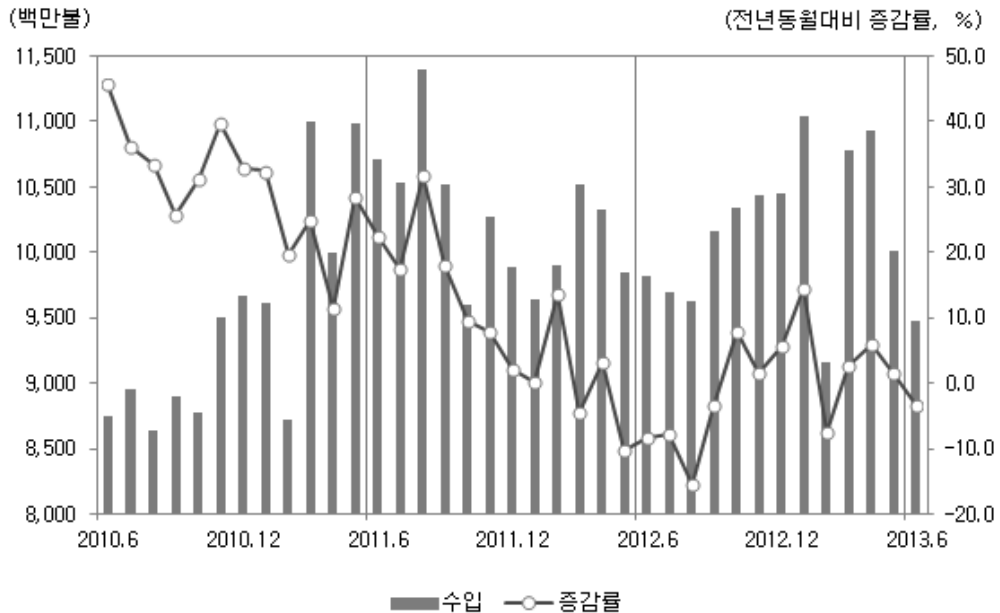
■ 서울의 6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448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수지,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823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항공기 및 부품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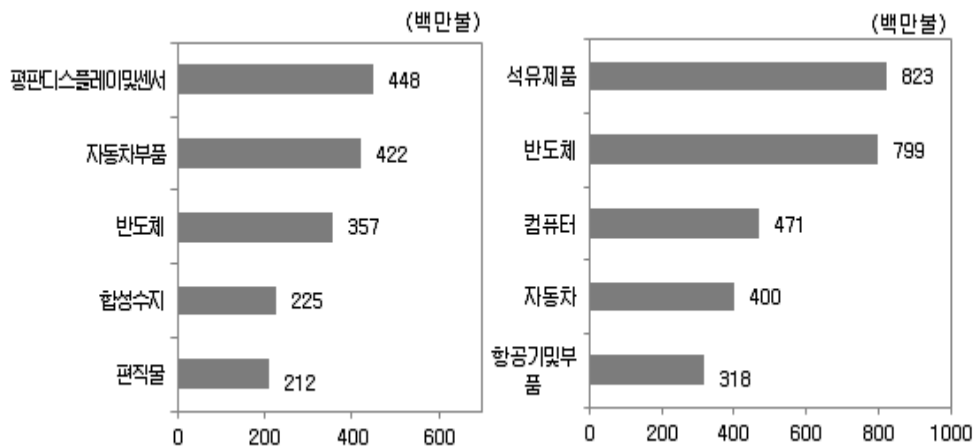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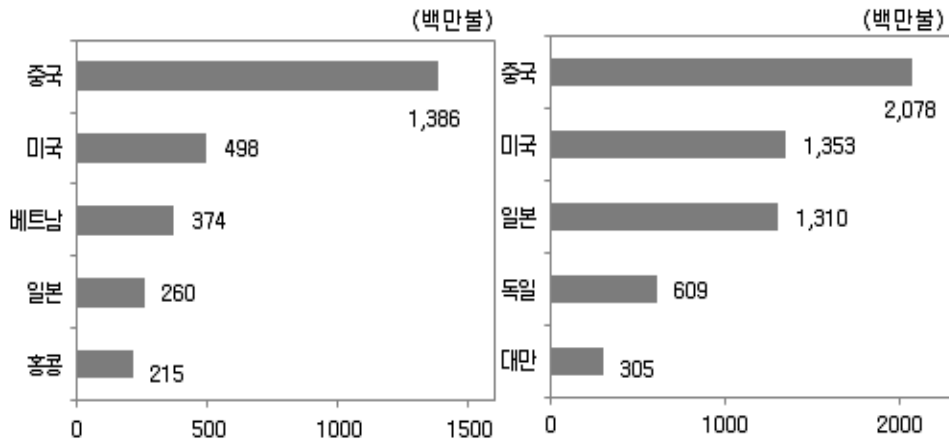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6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6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6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7.2% 감소한 1,386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한 2,078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6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6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SEOUL ECONOMIC BULLETIN

부록: 통계표

부록
통계표

■ 생 산

■ 고 용

■ 부 동 산

■ 금 융

1. 광공업 산업생산·출하·재고 지수

<2010=100>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2010	100.0	—	100.0	—	104.3	—
2011	102.3	—	102.7	—	109.9	—
2012	102.9	—	104.1	—	109.4	—
2010.	2/4	96.4	103.7	95.1	103.1	92.9
	3/4	94.9	101.8	92.0	101.0	99.0
	4/4	110.0	102.3	108.8	100.4	104.3
2011.	1/4	107.3	103.0	111.5	103.8	99.8
	2/4	92.5	99.1	90.8	98.2	100.6
	3/4	98.6	105.5	97.2	106.7	107.8
	4/4	110.6	102.9	111.4	103.1	109.9
2012.	1/4	110.2	105.0	115.3	107.1	103.5
	2/4	94.7	102.6	95.6	104.2	102.6
	3/4	97.3	104.1	94.5	104.1	106.9
	4/4	109.6	103.4	111.1	103.5	109.4
2013.	1/4	102.5	98.2	110.2	102.8	106.9
	2/4p	89.9	96.6	91.6	99.4	103.3
2011.	6	87.8	99.3	85.6	98.9	100.6
	7	93.0	103.6	91.2	105.8	104.2
	8	98.9	106.6	97.4	106.9	103.7
	9	103.9	106.2	103.0	107.3	107.8
	10	109.5	106.7	110.0	108.5	111.1
	11	106.9	101.0	104.4	97.8	110.6
	12	115.4	101.1	119.9	102.9	109.9
2012.	1	109.1	103.0	114.4	105.1	105.1
	2	108.7	106.9	115.1	109.7	101.1
	3	112.7	105.2	116.3	106.4	103.5
	4	98.7	103.2	101.7	105.0	102.5
	5	94.6	102.1	94.8	103.6	102.5
	6	90.8	102.6	90.3	104.1	102.6
	7	95.3	105.7	91.1	105.5	102.6
	8	97.8	105.3	96.1	105.7	103.7
	9	98.7	101.2	96.3	101.1	106.9
	10	105.9	103.1	104.9	103.2	110.3
	11	110.7	104.7	110.8	103.9	113.0
	12	112.2	102.3	117.5	103.5	109.4
2013.	1	107.1	95.3	114.6	99.8	106.4
	2	94.6	98.9	104.1	104.7	106.9
	3	105.8	100.3	112.0	103.9	106.9
	4	95.0	96.1	100.3	100.7	103.0
	5p	89.9	95.9	87.3	94.9	104.5
	6p	84.7	97.7	87.2	102.7	103.3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로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산업생산·출하·재고 증감률

<2010=100, 계절조정, 단위: %>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2010	—	5.2	100.0	—	6.7	100.0	—	1.3	104.3
2011	—	2.3	102.3	—	2.7	102.7	—	5.4	109.9
2012	—	0.6	102.9	—	1.4	104.1	—	-0.5	109.4
2010. 2/4	10.3	5.9	96.4	7.1	6.9	95.1	-5.2	-4.7	92.9
3/4	-1.8	-0.2	94.9	-2.0	1.8	92.0	2.3	-3.5	99.0
4/4	0.5	6.7	110.0	-0.6	6.9	108.8	3.2	1.3	104.3
2011. 1/4	0.7	8.8	107.3	3.4	7.1	111.5	1.0	1.0	99.8
2/4	-3.8	-4.0	92.5	-5.4	-4.5	90.8	1.8	8.3	100.6
3/4	6.5	3.9	98.6	8.7	5.7	97.2	2.4	8.9	107.8
4/4	-2.5	0.5	110.6	-3.4	2.4	111.4	-0.2	5.4	109.9
2012. 1/4	2.0	2.7	110.2	3.9	3.4	115.3	-0.3	3.7	103.5
2/4	-2.3	2.4	94.7	-2.7	5.3	95.6	0.2	2.0	102.6
3/4	1.5	-1.3	97.3	-0.1	-2.8	94.5	-0.8	-0.8	106.9
4/4	-0.7	-0.9	109.6	-0.6	-0.3	111.1	0.9	-0.5	109.4
2013. 1/4	-5.0	-7.0	102.5	-0.7	-4.4	110.2	3.1	3.3	106.9
2/4p	-1.6	-5.1	89.9	-3.3	-4.2	91.6	-2.2	0.7	103.3
2011. 6	1.7	-8.3	87.8	2.2	-8.4	85.6	0.0	8.3	100.6
7	4.3	-1.0	93.0	7.0	2.2	91.2	1.3	5.1	104.2
8	2.9	6.9	98.9	1.0	7.5	97.4	-0.7	4.9	103.7
9	-0.4	5.6	103.9	0.4	7.2	103.0	1.8	8.9	107.8
10	0.5	3.7	109.5	1.1	6.2	110.0	2.4	6.4	111.1
11	-5.3	-1.3	106.9	-9.9	-1.6	104.4	-1.7	6.6	110.6
12	0.1	-0.7	115.4	5.2	2.7	119.9	-0.8	5.4	109.9
2012. 1	1.9	-7.4	109.1	2.1	-8.0	114.4	-1.6	2.6	105.1
2	3.8	17.1	108.7	4.4	17.9	115.1	-1.8	1.4	101.1
3	-1.6	1.3	112.7	-3.0	3.2	116.3	3.2	3.7	103.5
4	-1.9	-0.7	98.7	-1.3	2.9	101.7	-1.2	0.9	102.5
5	-1.1	4.8	94.6	-1.3	7.7	94.8	-0.3	0.4	102.5
6	0.5	3.4	90.8	0.5	5.5	90.3	1.7	2.0	102.6
7	3.0	2.5	95.3	1.3	-0.1	91.1	-2.3	-1.5	102.6
8	-0.4	-1.1	97.8	0.2	-1.3	96.1	1.0	0.0	103.7
9	-3.9	-5.0	98.7	-4.4	-6.5	96.3	0.6	-0.8	106.9
10	1.9	-3.3	105.9	2.1	-4.6	104.9	2.7	-0.7	110.3
11	1.6	3.6	110.7	0.7	6.1	110.8	1.2	2.2	113.0
12	-2.3	-2.8	112.2	-0.4	-2.0	117.5	-2.9	-0.5	109.4
2013. 1	-6.8	-1.8	107.1	-3.6	0.2	114.6	-0.9	1.2	106.4
2	3.8	-13.0	94.6	4.9	-9.6	104.1	3.9	5.7	106.9
3	1.4	-6.1	105.8	-0.8	-3.7	112.0	0.2	3.3	106.9
4	-4.2	-3.7	95.0	-3.1	-1.4	100.3	-4.4	0.5	103.0
5p	-0.2	-5.0	89.9	-5.8	-7.9	87.3	1.4	2.0	104.5
8p	1.9	-6.7	84.7	8.2	-3.4	87.2	0.8	0.7	103.3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전월비는 계절조정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2013년 6월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2012.6	2013.5	2013.6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8,440	8,531	8,540	100	1.2
경제활동인구	5,330	5,343	5,352	22	0.4
(참가율)	(63.2)	(62.6)	(62.7)	(-0.5p)	-
남 자	2,985	2,987	2,988	3	0.1
(참가율)	(73.4)	(72.9)	(72.9)	(-0.5p)	-
여 자	2,345	2,356	2,365	19	0.8
(참가율)	(53.7)	(53.1)	(53.3)	(-0.4p)	-
취 업 자	5,105	5,114	5,141	36	0.7
(고용률)	(60.5)	(59.9)	(60.2)	(-0.3p)	-
농림어업	10	3	3	-7	-72.6
광공업	512	456	462	-50	-9.8
· 제 조업	511	455	461	-50	-9.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583	4,656	4,677	93	2.0
· 건설업	354	342	347	-7	-2.1
· 도소매·음식숙박업	1,333	1,311	1,333	0	0.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069	2,117	2,102	33	1.6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27	886	895	67	8.1
실 업 자	226	229	211	-15	-6.5
(실업률)	(4.2)	(4.3)	(3.9)	(-0.3p)	-
비경제활동인구	3,110	3,188	3,188	78	2.5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2013년 6월 직업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12.6	2013.5	2013.6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5,105	5,114	5,141	36	0.7
직 업 별	관리자전문가	1,408	1,476	1,504	96	6.8
	사무종사자	1,053	1,078	1,079	26	2.5
	서비스·판매종사자	1,227	1,216	1,214	-13	-1.1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16	8	7	-9	-57.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401	1,335	1,337	-63	-4.5
성 별	남자	2,842	2,857	2,873	31	1.1
	여자	2,263	2,257	2,268	5	0.2
종 사 상 지 위 별	비임금근로자	1,170	1,091	1,100	-71	-6.0
	자영업주	1,005	931	934	-71	-7.1
	무급가족종사자	166	160	166	0	0.2
	임금근로자	3,934	4,023	4,041	107	2.7
	상용근로자	2,370	2,520	2,536	167	7.0
	임시근로자	1,169	1,122	1,123	-46	-3.9
	일용근로자	396	382	382	-14	-3.4
	36시간 미만	585	1,655	580	-5	-0.8
취 업 시 간 대 별	1-17시간	228	212	207	-21	-9.1
	18-35시간	357	1,443	373	16	4.5
	36시간 이상	4,452	3,413	4,496	44	1.0
	36-53시간	3,167	2,525	3,403	237	7.5
	54시간이상	1,285	888	1,092	-193	-15.0
	일 시 휴 직	68	46	65	-3	-4.0
	주당평균취업시간	45.3	41.1	44.2	-1.1	-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3. 취업자·실업자·실업률·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 %p〉

연 도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09.	10	4,840	-1.4	192	3.4	3.8	3,306	3.2	
	11	4,879	-0.4	216	11.3	4.2	3,248	1.8	
	12	4,877	0.5	208	6.6	4.1	3,261	0.7	
2010.	4	4,925	1.9	264	3.9	5.1	3,184	-1.2	
	5	4,995	2.9	219	-9.1	4.2	3,167	-1.7	
	6	4,988	2.0	221	-5.8	4.2	3,177	-0.7	
	7	5,013	3.1	234	-4.8	4.5	3,144	-2.4	
	8	4,962	3.6	223	-0.3	4.3	3,209	-3.4	
	9	4,960	3.3	225	5.1	4.3	3,210	-3.3	
	10	4,972	2.7	239	24.1	4.6	3,186	-3.6	
	11	4,981	2.1	213	-1.5	4.1	3,206	-1.3	
	12	4,998	2.5	224	7.3	4.3	3,184	-2.4	
	2011.	4	5,021	1.9	263	-0.2	5.0	3,125	-1.9
		5	5,074	1.6	243	11.1	4.6	3,097	-2.2
		6	5,098	2.2	236	6.7	4.4	3,079	-3.1
7		5,089	1.5	226	-3.5	4.2	3,093	-1.6	
8		4,962	1.4	223	1.7	4.3	3,141	-2.1	
9		4,979	1.4	223	107	4.3	3,141	-2.1	
10		5,024	1.0	210	-12.0	4.0	3,147	-1.2	
11		5,018	0.7	208	-2.4	4.0	3,150	-1.8	
12		4,971	-0.5	223	-0.3	4.3	3,181	-0.1	
2012.		1	4,925	0.2	241	-2.3	4.7	3,220	-0.8
		2	4,925	-4.0	287	13.0	5.5	3,168	-0.6
		3	4,991	0.2	253	-11.5	4.8	3,164	0.7
	4	5,061	0.8	233	-11.7	4.4	3,124	0.0	
	5	5,115	0.8	216	-11.1	4.1	3,099	0.1	
	6	5,105	0.1	226	-4.2	4.2	3,110	1.0	
	7	5,102	0.3	221	-2.0	4.2	3,130	1.2	
	8	5,035	0.1	224	-1.1	4.3	3,201	1.9	
	9	5,057	1.6	212	-8.3	4.0	3,197	0.6	
	10	5,043	0.4	188	-10.4	3.6	3,241	3.0	
	11	5,029	0.2	188	-9.4	3.6	3,264	3.6	
	12	5,027	1.1	178	-20.0	3.4	3,289	3.4	
2013.	1	5,011	1.7	204	-15.6	3.9	3,285	2.0	
	2	4,984	0.8	241	-16.0	4.6	3,283	3.6	
	3	4,999	0.2	265	4.7	5.0	3,251	2.7	
	4	5,073	0.2	226	-2.9	4.3	3,224	3.2	
	5	5,114	0.0	229	5.9	4.3	3,188	2.9	
	6	5,141	0.7	211	-6.5	3.9	3,188	2.5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주택매매가격 지수

<2013.3 = 100.0>

연 도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아파트매매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7	88.0	96.9	93.9	100.3	102.5	97.8	106.9
2008	90.7	101.8	102.1	101.5	105.8	106.9	104.8
2009	92.0	104.5	104.1	105.0	108.5	107.9	109.0
2010. 1	92.1	104.6	104.2	105.1	108.6	107.9	109.1
2	92.4	104.9	104.3	105.5	108.9	108.0	109.6
3	92.6	105.0	104.4	105.5	108.8	108.0	109.6
4	92.8	104.9	104.3	105.5	108.7	107.7	109.5
5	92.9	104.7	104.1	105.3	108.3	107.4	109.0
6	92.9	104.3	103.7	104.9	107.6	106.7	108.5
7	92.8	104.0	103.4	104.5	107.1	106.1	107.9
8	92.7	103.6	103.1	104.1	106.6	105.7	107.4
9	92.8	103.4	102.8	104.0	106.3	105.4	107.1
10	93.0	103.3	102.7	103.9	106.1	105.1	107.0
11	93.4	103.2	102.6	103.8	106.0	105.0	106.9
12	93.8	103.3	102.6	104.0	106.1	105.0	107.0
2011. 1	94.2	103.4	102.7	104.2	106.3	105.1	107.3
2	94.9	103.7	102.8	104.6	106.6	105.3	107.7
3	95.9	103.9	103.1	104.8	106.7	105.4	107.9
4	96.7	104.0	103.2	104.8	106.7	105.4	107.8
5	97.3	104.0	103.2	104.8	106.7	105.4	107.7
6	97.8	104.0	103.2	104.7	106.5	105.4	107.5
7	98.2	103.9	103.2	104.6	106.4	105.2	107.3
8	98.7	103.9	103.1	104.6	106.2	105.1	107.2
9	99.2	103.8	103.1	104.6	106.1	105.0	107.1
10	99.6	103.8	103.0	104.5	106.0	105.0	106.9
11	100.0	103.7	103.0	104.4	105.8	104.9	106.6
12	100.2	103.6	102.9	104.3	105.6	104.8	106.4
2012. 1	100.3	103.5	102.8	104.1	105.5	104.7	106.1
2	100.5	103.4	102.8	104.0	105.3	104.6	105.9
3	100.7	103.3	102.7	103.8	105.1	104.4	105.6
4	100.8	103.0	102.5	103.5	104.6	104.1	105.0
5	100.8	102.8	102.4	103.3	104.3	103.9	104.7
6	100.8	102.6	102.2	103.0	104.0	103.6	104.3
7	100.7	102.2	101.9	102.5	103.4	103.1	103.7
8	100.6	101.9	101.7	102.2	103.0	102.8	103.1
9	100.4	101.5	101.4	101.6	102.3	102.3	102.3
10	100.3	101.1	101.0	101.2	101.7	101.6	101.7
11	100.2	100.9	100.7	101.0	101.3	101.2	101.3
12	100.2	100.6	100.6	100.6	100.9	100.9	100.9
2013. 1	100.1	100.4	100.4	100.4	100.5	100.6	100.5
2	100.0	100.2	100.2	100.2	100.3	100.3	100.2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0	99.9	99.9	99.9	99.9	99.8	99.9
5	100.0	99.9	99.8	99.9	99.8	99.7	99.9
6	99.9	99.7	99.6	99.8	99.6	99.5	99.7

주: 2013년 3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2. 주택전세가격 지수

<2013.3=100.0>

연 도	전국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아파트전세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7	75.7	76.8	77.9	75.7	74.7	75.9	73.7
2008	76.9	77.6	80.6	74.9	73.4	76.3	71.0
2009	79.5	82.3	83.8	80.8	79.3	80.4	78.4
2010. 1	79.8	82.6	83.9	81.3	79.7	80.6	79.1
2	80.3	83.2	84.4	82.0	80.5	81.1	80.0
3	80.8	83.8	85.1	82.5	81.1	81.9	80.4
4	81.3	84.3	85.6	83.0	81.5	82.3	80.8
5	81.7	84.5	85.8	83.2	81.7	82.5	81.1
6	82.0	84.6	85.8	83.4	81.8	82.5	81.3
7	82.2	84.7	85.8	83.5	81.9	82.4	81.5
8	82.5	84.9	86.0	83.9	82.1	82.5	81.7
9	83.0	85.5	86.5	84.5	82.6	83.0	82.3
10	83.7	86.3	87.2	85.4	83.6	83.9	83.3
11	84.6	87.0	87.7	86.3	84.5	84.6	84.4
12	85.2	87.5	88.1	87.0	85.2	84.9	85.3
2011. 1	85.9	88.4	88.8	87.9	86.1	85.8	86.4
2	87.3	89.9	90.4	89.4	87.9	87.8	88.0
3	88.9	91.1	91.8	90.5	89.5	89.8	89.3
4	89.9	91.7	92.3	91.1	90.1	90.5	89.8
5	90.7	92.1	92.6	91.5	90.4	90.8	90.0
6	91.3	92.5	92.9	92.1	90.8	91.1	90.6
7	92.0	93.3	93.6	93.0	91.8	92.0	91.7
8	93.0	94.5	94.7	94.2	93.4	93.6	93.2
9	94.3	96.0	96.3	95.8	95.5	95.8	95.2
10	95.1	96.9	97.2	96.6	96.5	97.0	96.0
11	95.6	97.1	97.5	96.7	96.7	97.5	96.2
12	95.7	97.0	97.4	96.6	96.6	97.3	96.0
2012. 1	95.9	97.0	97.5	96.6	96.5	97.3	95.9
2	96.3	97.3	97.7	96.8	96.7	97.5	96.1
3	96.7	97.5	98.0	97.0	96.9	97.8	96.3
4	97.1	97.6	98.2	97.0	97.0	97.9	96.2
5	97.3	97.6	98.3	96.9	96.9	97.9	96.1
6	97.4	97.6	98.3	96.9	96.9	97.8	96.1
7	97.6	97.6	98.2	96.9	96.8	97.8	96.0
8	97.7	97.6	98.3	97.0	96.8	97.8	96.0
9	98.0	98.0	98.6	97.4	97.3	98.2	96.6
10	98.5	98.5	98.9	98.0	98.0	98.6	97.4
11	98.9	98.8	99.1	98.5	98.5	98.8	98.2
12	99.1	99.0	99.1	98.9	98.7	98.9	98.6
2013. 1	99.3	99.2	99.3	99.2	99.0	99.0	99.0
2	99.6	99.6	99.5	99.6	99.5	99.4	99.5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4	100.3	100.3	100.4	100.4	100.4	100.5
5	100.6	100.5	100.4	100.6	100.6	100.6	100.7
6	100.8	100.7	100.6	100.8	100.9	100.8	100.9

주: 2013년 3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3. 2013년 6월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아파트 가격지수 및 아파트 3.3㎡당 매매가격

<2013.3=100.0>

구 분	주 택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3.3㎡당 매매가격
강 북 구	99.9	100.3	99.5	100.9	1,070
광 진 구	99.9	100.7	99.6	101.1	1,727
노 원 구	99.4	100.3	99.5	100.4	1,098
도 봉 구	99.5	101.2	99.4	100.9	1,004
동대문구	99.9	100.5	99.7	100.8	1,215
마 포 구	99.5	100.5	99.6	101.2	1,602
서대문구	99.7	101.1	99.8	101.0	1,219
성 동 구	99.4	101.4	99.2	101.4	1,618
성 북 구	99.7	100.4	99.5	101.2	1,199
용 산 구	98.5	100.7	99.1	100.7	2,362
은 평 구	99.7	100.6	99.5	101.3	1,199
종 로 구	99.9	100.3	99.7	100.5	1,630
중 구	99.6	100.9	99.5	100.9	1,650
중 랑 구	99.6	100.1	99.3	100.2	1,074
강 남 구	99.9	100.7	99.8	100.6	2,847
강 동 구	100.0	100.6	99.8	100.8	1,606
강 서 구	99.5	101.3	99.3	101.8	1,238
관 약 구	100.0	101.3	99.8	101.4	1,193
구 로 구	99.7	100.6	99.5	100.8	1,146
금 천 구	99.9	101.0	99.1	101.1	968
동 작 구	99.7	100.4	99.6	100.9	1,494
서 초 구	100.0	100.4	100.0	100.2	2,630
송 파 구	100.2	100.8	100.4	100.9	2,108
양 천 구	99.5	100.6	99.3	101.0	1,701
영등포구	99.5	101.0	99.5	101.5	1,519

주: 아파트 평당매매가 (단위: 만원/3.3㎡), 2013년 3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 114

1. 주요 금융지표

<기말, 단위:%,p>

연 도	국고채 (3년)	회사채 (3년)	CD(91일)	콜금리	종합주가지수	환율(W/U\$)
2007	5.23	5.70	5.16	4.77	1,713.2	929.2
2008	5.27	7.02	5.49	4.78	1,529.5	1,102.6
2009	4.04	5.81	2.63	1.98	1,429.0	1,276.4
2010. 1	4.29	5.40	2.88	2.00	1,682.2	1,138.8
2	4.19	5.32	2.88	2.00	1,599.0	1,156.8
3	3.94	5.02	2.83	2.01	1,665.5	1,136.1
4	3.77	4.69	2.51	2.00	1,730.3	1,115.7
5	3.70	4.48	2.45	2.01	1,648.3	1,168.4
6	3.75	4.65	2.45	2.00	1,691.9	1,214.0
7	3.88	4.81	2.58	2.21	1,731.1	1,204.9
8	3.73	4.68	2.63	2.27	1,762.2	1,180.1
9	3.48	4.41	2.66	2.27	1,815.8	1,162.9
10	3.24	4.13	2.66	2.26	1,889.7	1,122.2
11	3.40	4.19	2.73	2.37	1,924.7	1,128.1
12	3.25	4.17	2.80	2.50	2,002.5	1,147.5
2011. 1	3.71	4.52	2.93	2.66	2,091.6	1,120.1
2	3.94	4.72	3.13	2.75	2,002.8	1,118.1
3	3.74	4.54	3.35	2.92	2,002.6	1,122.4
4	3.74	4.54	3.40	3.01	2,153.1	1,086.8
5	3.66	4.44	3.46	3.02	2,121.8	1,083.5
6	3.65	4.40	3.53	3.21	2,074.6	1,081.3
7	3.77	4.48	3.59	3.26	2,150.0	1,059.5
8	3.57	4.29	3.59	3.25	1,869.4	1,073.1
9	3.45	4.24	3.58	3.25	1,790.9	1,118.6
10	3.47	4.29	3.58	3.24	1,825.8	1,155.4
11	3.39	4.24	3.56	3.26	1,858.8	1,132.3
12	3.36	4.24	3.55	3.26	1,863.2	1,147.5
2012. 1	3.37	4.24	3.55	3.26	1,891.0	1,145.8
2	3.43	4.25	3.53	3.25	2,003.2	1,123.4
3	3.55	4.36	3.54	3.25	2,023.4	1,125.9
4	3.50	4.25	3.54	3.25	1,995.9	1,135.5
5	3.38	4.01	3.54	3.26	1,886.4	1,154.3
6	3.29	3.87	3.54	3.26	1,848.6	1,165.5
7	3.01	3.60	3.34	3.08	1,826.8	1,143.4
8	2.83	3.40	3.19	3.00	1,918.9	1,131.7
9	2.81	3.31	3.14	2.99	1,961.3	1,124.8
10	2.78	3.30	2.93	2.80	1,942.2	1,106.9
11	2.80	3.32	2.85	2.75	1,904.7	1,087.5
12	2.85	3.30	2.88	2.75	1,973.8	1,077.0
2013. 1	2.75	3.20	2.86	2.76	1,986.1	1,065.4
2	2.70	3.06	2.83	2.75	1,979.9	1,086.7
3	2.60	2.95	2.81	2.74	1,990.2	1,102.2
4	2.55	2.91	2.80	2.75	1,938.9	1,121.8
5	2.59	2.96	2.72	2.55	1,974.5	1,110.7
6	2.87	3.24	2.69	2.49	1,884.4	1,135.2

자료: 한국은행

2.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어음부도율

<단위: 개, %>

연 도	신설법인수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서울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7	20,063	1,606	1,674	16,555	0.01	735
2008	18,133	1,717	1,520	14,865	0.02	977
2009	20,401	3,081	1,402	15,838	0.02	741
2010. 1	1,812	286	150	1,360	0.03	51
2	1,633	248	132	1,247	0.03	38
3	2,044	342	158	1,539	0.02	48
4	1,946	283	141	1,513	0.03	41
5	1,669	257	120	1,286	0.03	45
6	1,871	300	126	1,438	0.03	42
7	1,850	313	122	1,412	0.03	56
8	1,686	264	104	1,310	0.04	58
9	1,485	243	85	1,148	0.03	49
10	1,699	277	99	1,319	0.02	48
11	1,847	257	122	1,458	0.02	51
12	1,938	299	103	1,524	0.01	64
2011. 1	2,000	283	138	1,566	0.01	26
2	1,501	222	104	1,165	0.02	45
3	2,055	222	131	1,677	0.02	51
4	2,021	258	131	1,671	0.03	53
5	1,844	209	132	1,489	0.02	53
6	2,046	282	116	1,633	0.04	40
7	1,918	277	120	1,512	0.01	45
8	1,752	244	95	1,401	0.01	45
9	1,597	203	85	1,301	0.01	35
10	1,767	217	84	1,459	0.01	40
11	1,804	228	111	1,452	0.01	53
12	2,181	340	121	1,708	0.01	54
2012. 1	1,939	236	117	1,578	0.01	30
2	2,200	292	145	1,738	0.01	37
3	2,167	275	134	1,742	0.01	35
4	2,165	243	137	1,667	0.02	37
5	2,186	253	148	1,775	0.01	32
6	2,182	303	130	1,736	0.01	34
7	2,273	343	123	1,789	0.02	33
8	1,961	254	115	1,582	0.02	37
9	1,949	263	113	1,565	0.01	44
10	1,903	225	103	1,561	0.02	40
11	1,972	248	86	1,625	0.03	33
12	1,871	240	92	1,529	0.02	40
2013. 1	2,283	325	133	1,809	0.02	30
2	1,850	230	99	1,512	0.01	31
3	2,099	263	119	1,706	0.01	31
4	2,078	277	118	1,670	0.02	39
5	2,140	279	129	1,721	0.02	29
6	1,947	300	113	1,518	0.01	20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3.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증감률

<단위: 개, %>

구 분	2013년			전월비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서울 계	2,078	2,140	1,947	-193	-9.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계	13	11	16	5	45.5
제조업 계	277	279	300	21	7.5
음.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33	31	34	3	9.7
섬유 및 가죽	55	52	60	8	15.4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10	14	9	-5	-35.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7	8	1	14.3
고무 및 화학제품	37	46	44	-2	-4.3
기계, 금속	33	31	32	1	3.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75	81	82	1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4	3	7	4	133.3
기타 제품제조업	24	14	24	10	71.4
건설업 계	118	129	113	-16	-1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7	13	3	-10	-76.9
건설업	111	116	110	-6	-5.2
서비스업 계	1,670	1,721	1,518	-203	-11.8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5	5	5	0	0.0
도매 및 소매업	499	500	477	-23	-4.6
운수업	36	39	29	-10	-25.6
숙박 및 음식점업	41	31	51	20	64.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0	360	287	-73	-20.3
금융 및 보험업	180	206	193	-13	-6.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0	132	99	-33	-25.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49	249	220	-29	-11.6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97	85	76	-9	-10.6
교육서비스업	53	52	37	-15	-28.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1	4	2	-2	-5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31	35	21	-14	-40.0
협화·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22	23	21	-2	-8.7

자료: 중소기업청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6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6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6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3년 6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KB부동산알리지, 「2013년 6월 월간 KB주택가격동향」
부동산114, 「2013년 6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3년 6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3년 6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3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3년 6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3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서울경제 주요기사목록

(2005년 3월호 ~ 2013년 7월호)

2005년

3월호 | 권두컬럼: 우리 모두 소임을 다하자(조순) |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도심산업생태계의 동향과 전망 (정병순)

4월호 | 권두컬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공병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소고(박희석)

5월호 | 권두컬럼: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 공간(박삼욱) | 경제포커스: 서울시 산학연협력의 실태와 시사점(신창호) |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제도약 및 향후 발전방안(김선운, 김경배, 윤형호, 조지선)

6월호 | 권두컬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김정호) | 경제포커스: 최근 부동산 안정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설문조사(박희석, 안지선, 최태림) | 2005년 하반기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7월호 | 권두컬럼: 혁신(Innovation)에 대한 근본적 이해(윤현덕) | 경제포커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하여(정창무) | 최근 부동산 문제와 정책방향(김현아)

8월호 | 권두컬럼: 문화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은?(김형국) | 경제포커스: 문화산업의 현황 및 육성정책(박위진) |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문화마케팅 전략(라도삼, 박종구, 이종규, 공자원)

9월호 | 권두컬럼: 청계천 복원사업의 리더쉽과 신헌류(황기연) |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의 도심재생 효과(임희지) |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이영성) | 전문가 의견 및 설문조사: 도심 명소로서 청계천의 미래상(박희석, 이승지)

10월호 | 권두컬럼: 신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자(김진호) | 경제포커스: 최근 고유가의 서울경제 파급효과 분석(박희석) | 고유가 시대의 대응 방안(오승구)

11월호 | 권두컬럼: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김성진) | 경제포커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한정화)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방안(홍순영)

12월호 | 권두컬럼: 8.31 부동산세제 평가(나성린) | 경제포커스: 8.31대책과 주요쟁점들(서승환) | 2006년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2006년

1월호 | 권두컬럼: 윤리경영, 환경경영(조동성) | 경제포커스: 인쇄업 인적자원개발(윤형호) |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박희석, 홍나미) | 자치구경제이슈: 「종로·청계 관광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성린)

2월호 | 권두컬럼: 수도권의 경쟁력(왕연균) | 경제포커스: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인식(김경환) |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정희윤) | 자치구경제이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활성화(전성근)

3월호 | 이달의 이슈: 최근 서울 경기 행방은 어디로...(박희석) | 경제포커스: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II(정병순) |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재발견(박래현) | 자치구 경제이슈: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오근)

4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도시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신창호) | 경제포커스: 수도권 테마파크 현황과 발전방안(윤형호) |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이병민) | 자치구 경제이슈: 「광진구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석근)

5월호 | 이달의 이슈: 양극화 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정병순) | 경제포커스: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완화방안(최경규) | 지역불균형 및 양극화 진단과 해소방안(김상일)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동직)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신창호) | 경제포커스: 서울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동기) | 전문가 의견조사: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박희석, 박지운) | 자치구 경제이슈: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세계 속의 서초를 향하여(황인식)

7월호 | 이달의 이슈: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허(虛)와 실(實)(송용일) | 경제포커스: 혁신중소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최경규) | 한국기술평가의 현황(양동우) | 자치구 경제이슈: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유근)

8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환경과 지역가치(라도삼) | 경제포커스: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 동향(구문모) | 새로운 영화산업의 중심지 서울강남지역의 특성(주성재) | 자치구 경제이슈: 「첨단업무단지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성용)

9월호 | 이달의 이슈: 학교선택권 확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박정수) | 경제포커스: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김진영) | 대학재정의 현황과 발전방안(안중석) | 자치구 경제이슈: 「우량기업 유치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임일영)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은 성장동력인가?(김철원) | 경제포커스: 도시마케팅의 현황과 발전방안(김찬동) |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 어울리는 서울 도시관광의 미래상(박종구) | 자치구 경제이슈: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이기)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세계화 서울의 외국인 마을(김은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윤형호) |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최경규)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윤병구)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4대 산업벨트 조성을 경제 제도약의 계기로(신창호) | 경제포커스: 대도시권 경제의 미래와 서울의 도심산업 재활성화(정병순) | 서울시 2007년 경제전망(윤형호, 임석) | 심층의견조사: 2007년 서울시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 박지운)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특화발전 전략(정경효)

2007년

2007년부터 서울경제 발행일이 <매월말일 당월호>에서 <매월말일 익월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호는 발간되지 않으며, 2007년 1월 말일 발간되는 서울경제는 <서울경제 2월호>로 표기됩니다.

2007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도시재생의 방향(오병호) | 경제포커스: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양재섭, 김정원) | 도시 창조지수 및 창조집단의 분포 특성으로 본 도시재생 전략의 방향(신성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금융기관대출금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오피스시장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인프라가 튼튼하여 잘사는 관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용중)

2007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고령자 취업정책(황진수) | 경제포커스: 서울시 고령자 재취업 특성 분석(윤형호) |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자 현황(김은희) | 생생리포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디지털산업의 메카」로 변신(강현주) | 자치구탐방: 「화곡유통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김영수)

2007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블루오션, 서울시 중심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박창일) | 경제포커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전략(김남현) |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 네트워크(원용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공원에 대한 심층의견조사(박지운·박희석) | 자치구

탐방: 「상암 DMC와 합정균형발전축진지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재형)

2007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현황과 육성 전략(유병규) | 경제포커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오찬수) |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도전과 응전(정병순) | 생생리포트: 서울시 창업 및 부도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30평형 아파트 가격 비교(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경숙)

2007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효과(김철원) | 경제포커스: 국제회의 개최현황 통계 속의 전략적 의미(금기용) | 서울시 컨벤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진홍석) | 생생리포트: 동대문, '패션특별시, 서울' 을 꿈꾸다(강현주) | 자치구탐방: 「미아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축진지구 개발」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이동명)

2007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육성 방안(이운보) | 경제포커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전인우)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효과(신창호) |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박지희·박희석) | 자치구탐방: 「가재울뉴타운추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내원)

2007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신재생에너지의 과제와 비전(조경엽) | 경제포커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과(부경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조항문) | 생생리포트: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추이(강현주) | 서울시 R&D 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박지희) | 자치구탐방: 합리적 도시계획을 통한 도봉구의 발전방안(최영수)

2007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비스시장 개방(차문중) | 경제포커스: 법률시장 개방의 영향 및 효과(고준성) | 한미FTA 체결협정과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김범수) |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체감경기조사(박희석·박지희) | 자치구탐방: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권장오)

2007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한타지경제시대의 경쟁력과 디자인경영(정경원) | 경제포커스: 세계

디자인의 중심을 꿈꾸는 월드디자인플라자(신창호)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디자인(최두은) | 생생리포트: '가능성에 올인' 애니메이션산업을 키운다(강현주) | 자치구탐방: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유경림)

2007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공연예술산업(김문환) | 경제포커스: 문화예술과 서울시의 문화경제 지표(장광렬) | 뮤지컬, 그 판타지가 세계를 물들인다(박용제) | 생생리포트: 서울시 수출입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생활물가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주운중)

2007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다양성 영화의 성장은 영화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안정숙) | 경제포커스: 서울시 국제 홍보 방안으로서 영화산업(장동찬) | 서울시 드라마 산업(고정민) | 생생리포트: 황금알을 낳는 의약산업, 바이오벤처에 달렸다(서울시경제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보석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여덕수)

2008년

2008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세계 도시 서울(김경환) | 경제포커스: '글로벌 도시, 서울' 을 향하여(최재현) | 서울, 국제도시에서 세계도시로 도약(홍석기) |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박지희) | 자치구탐방: 성수동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김상호)

2008년 2월호 | 달의 이슈: 외국인 100만 시대의 외국인력정책(박영범) | 경제포커스: 외국인고용 허가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유길상) | 외국인력 정책과제(이규용) |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변화 추이(서울시경제개발연구원) |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추이(서울시경제개발연구원)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구자선)

2008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새 방향과 서울의 역할(장윤중) | 경제포커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이홍식) |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언(전영제) |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별 이노비즈(Innobiz) 기업 현황(박희석·권태구) | 자치구탐방: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기순)

2008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통합적 도시브랜드로서의 디자인서울(박영순) | 경제포커스: 도시브랜드를 위한 통합 디자인(장동원) | 디자인 서울(윤종영) | 생생리포트: 국제 곡물 가격 추이(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고광득)

2008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예술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이유(전택수) | 경제포커스: 문화산업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옥성수) |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계획(라도삼) | 생생리포트: 최근 고유가 추세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동부서울의 성장거점도시화(황필성)

2008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Carbonomics'의 미래(김정인) | 경제포커스: 승용차 이용 감축을 통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고준호) | 탄소배출권 시장의 전망과 서울에서의 의의(이부형) | 생생리포트: 2008년 하반기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예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윤영표)

2008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자영업의 현황과 인프라(이상현) | 경제포커스: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화 및 협업화 과제와 정책방향(전안우) | 자영업 취업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손민중) | 생생리포트: 내수경기 침체시 서울지역 자영업의 위험성(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전통상권 살리기(김제형)

2008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박승록) | 경제포커스: 고유가 추이가 서울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박희석·한진아) | 고유가와 민생대책(이달석) | 생생리포트: 유가급등의 원인과 대응전략(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첨단디지털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동욱)

2008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외식업 활성화대책 및 육성방안(김태희) | 경제포커스: 외식업 창업지원 현황과 과제(이경희) |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분석 및 대응전략(윤남수) | 생생리포트: 경기도에 민감하고 대형화하는 서울시 음식점업(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김태두)

2008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발전방향(김영인) | 경제포커스: 서울패션브랜드, 세계 초일류의 꿈은 환상인가(김민자) |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방안(조익래) |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찰(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가칭 「양재 R&D」 밸리 조성을 통한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하익봉)

2008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의 필요성(이주선) | 경제포커스: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임준) | 서울시 의료 관광 현황과 방향(윤형호) | 생생리포트: 데이터로 본 서울시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징과 전망(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강동구 집단에너지(CES) 공급사업(임수근)

2008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저소득층 소득향상과 사회통합 과제(최경수) | 경제포커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해소 방안(이부형) | 저소득층의 활로 모색 - 3業2助(김선빈) |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의 현황과 특성(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김용중)

매달 제공되던 생생리포트가 2009년부터 분기별로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2009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서울시 정책 방향(박희석) | 경제포커스: 2009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방향(김선홍)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선인명) | 생생리포트: 금융위기 속 서울의 부도법인 수 큰폭 증가(조달호·이춘화)

화) | 자치구탐방: 삼각산 관광타운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종규)

2009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세계 물 산업 동향과 서울의 수도사업 발전방향(권형준) | 경제포커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물 산업 경쟁력 방안(윤형호) | 물 산업 측면에서 서울의 여건과 발전방향(윤주환)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김백곤)

2009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서울시의 방향(김정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활력형 녹색성장 촉진 방안(이정택) | 서울의 녹색성장을 위한 제언(박병욱) | 자치구탐방: “상봉지구 재정비”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봉로)

2009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녹색성장시대 지식 기반 제약산업 글로벌화(김성수) | 경제포커스: 바이오기술경영 및 규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바이오산업 추진방향 고찰(김문기) | 서울 바이오산업 발전방향(이상규) | 생생리포트: 서울시 녹색성장 효율성 평가(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진호)

2009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산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전망과 서울시의 대응방안(부경진) | 경제포커스: 녹색도시를 위한 서울시 그린카 활성화(고준호) | 녹색성장을 위한 LED조명 발전방안(주대영) | 자치구탐방: 서대문 경제위기 극복 프로젝트(심규표)

2009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변양규) |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방향과 전략 -일자리 창출 사례를 중심으로(윤형호) | 일자리 창출 증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허재준) | 자치구탐방: 강남구 탄소마일리지제도 운영(배영철)

2009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현황과 과제(김창석) | 경제포커스: 서울시 중심지 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양재섭·장남중·권미리) | 서울시 뉴타운산업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이왕진) | 자치구탐방: 노원, 전국 최고 도시를 꿈꾸다(권장오)

2009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온라인 게임산업과 서울시의 전략(위정현) | 경제포커스: 대한민국 게임산업, 그리고 새로운 10년(장현영) | 게임한류의 성과(김민규) | 자치구탐방: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례(박경호)

2009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여건과 과제(최생림) | 경제포커스: 여의도 금융중심지 정주환경 개선방안(윤형호) | 서울시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김창래) | 자치구탐방: 용산 전자유통단지 발전 및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영환)

2009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발자취와 미래 그리고 서울(김찬화) | 경제포커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방안 리뷰(여재천) | 제약기업의 발전을 위한 M&A의 역할(윤수영) |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저축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통한 고용촉진(김은혜)

2009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장재) | 경제포커스: 지식기반도시를 향한 서울의 R&D 전략(문경일) | 장기불황을 극복한 일본기업의 R&D 사례와 시사점(이지평) |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 보석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용순)

2009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개방화시대 광역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전략(정희윤) | 경제포커스: 수도권 광역경제권 효율적 네트워크 전략(김찬동) |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과 수도권권의 시사점(김영수) | 자치구탐방: 새로운 전략거점 개발과 걸차노믹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이미령)

2010년

2010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디자인노믹스의 등장과 서울의 대응전략(라도삼) | 경제포커스: 디자인을 꿈꾸고 디자인으로 성장하는 도시, 서울(최성호) | 도시명과 관련 상징물을 고려한 도시 이미지 디자인(홍석기)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양성태)

2010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무선인터넷을 통한 IT 서비스업 활성화(김성태) | 경제포커스: 반쪽 IT 강국, IT 서비스업 육성해야(임상수) | 국내 IT 서비스업 발전방안과 과제(김민성) | 자치구탐방: 종로, 지역의 역사가 곧 문화컨텐츠(최용순)

2010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령자가계 재정 분석(윤형호) | 경제포커스: 실버산업:인구고령화의 기회(김신영) | 실버산업의 유형과 장기적 전망(임춘식) | 자치구탐방: 금융뉴타운 조성을 통한 중구 브랜드 가치 제고(우상길)

<이달의 이슈>와 <경제포커스>로 구성되었던 서울경제가 4월호부터는 <이달의 이슈>로 통합되어 제공되며, <생생리포트>는 격월로 게재됩니다.

2010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조영복) |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향후 과제(정선희) |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특성분석(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지역경제 초석 다지기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김태두)

2010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SSM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방안(김찬동) | SSM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김유오) | 자치구탐방: 선진적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동수)

2010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배출권거래제의 해외동향과 서울시의 시사점(박호정) |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제언(진상현) |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안·구직 및 취업 실태와 특성(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동대문구 2IC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사업(이종인)

2010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융합시대의 IT산업의 방향(이성호) | 산업융합의 대두와 발전전략(서동혁) | 자치구탐방: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종인)

2010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방향(문경일) |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안재현) | 생생리포트: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변화추이 및 특성분석(박희석·오동훈·한진아) |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김백곤)

2010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전환기의 서울경제, IT산업의 재도약과 IT융합산업(정병순) |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과 과제(김진형) | 자치구탐방: 마포의 성장 동력 4대 거점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황중익)

2010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추이분석을 통한 여성취업의 발전방안(조연숙) | 서울의 경력단절과 향후 과제(오은진) | 생생리포트: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특성 분석(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상영)

2010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의 역량강화 방안(김범식) |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에서의 지식기반 제조업의 발전방향(송재용) | 자치구탐방: 민간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김찬식)

2010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김목한) |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대한 해외사례(조창현) | 생생리포트: 상업공간으로서의 서울의 길(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센터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오태섭)

2011년

2011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은 글로벌 메가 시티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변미리) | 글로벌 메가 시티의 현황과 전망(정재영) |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기호)

2011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방안(신경희) | 예비사회적기업과 여성(조선주) |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과 구민취업 두 마리 토끼잡기(이판수)

2011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MICE 산업의 미래와 과제(반정화) | MICE 산업의 트렌드 및 대응과제(주영민) | 기업탐방: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SR센

터(조달호·정규진) | 자치구탐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이판수)

2011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산업관광 훑어보기(김묵한) | 우리나라 산업관광의 미래발전방향(김상태) | 생생리포트: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문래 창작촌(박희석·한진아)

2011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광고산업 변화(이종관) | 한미 FTA가 우리나라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한상필) | 기업탐방: U-Healthcare 분야에서의 비트컴퓨터의 역학(조달호·정규진)

2011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창조기업 육성방안(이갑수) | 1인창조기업의 시대를 맞아(안남우) | 생생리포트: 서울시 도매업의 변화추이와 특성분석(박희석·양승희)

2011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용취약계층과 유연근무제 활성화(김태홍) | 서울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방안(진준순) | 생생리포트: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박희석·한진아) | 서울지역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박희석·한진아)

2011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10%의 기업이 40%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김선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조호정)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바이오메디컬(박희석·양승희)

2011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한미 FTA와 서울시 정책과제(김도훈) | 한미 FTA와 서울의 금융서비스산업(성한경)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MICE산업(박희석·한진아)

2011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현황과 정책과제(신상영) | 한국과 일본의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박정현) | 생생리포트: 2011년 3/4분기 서울의 소득별·연령별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박희석·오동훈)

2011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발전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노영진) |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과 서울시의 과제(임형준)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한류문화콘텐츠 산업(박희석·양승희)

2011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 취업현황과 고용 활성화 방안(이찬영) | 취업부모의 보육서비스 효율과 방안에 대한 해외사례(홍승아) | 생생리포트: SDI 서울지역 4/4분기 체감경기 조사 및 경제전망(박희석·오동훈)

2012년

2012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김동열)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평가 및 개선과제(이은애) | 생생리포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박희석·한진아)

2012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OECD 국가 중 국내 물가가 높은 이유(임희정) |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이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용선)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가계부채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2012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권역별 주요 산업현황과 추세(김묵한·김범식) |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향(정종식) | 생생리포트: 서울의 권역별 소비자 체감경기 특성(박희석·곽지원)

2012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그 가능성에 대한 탐색(나도삼) | 현사례조사로 본 전통시장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송기철) | 생생리포트: 서울, 시장(市場),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풍경(박희석·한진아)

2012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마을공동체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김재현) | 지역문제 해결은 마을기업만의 몫이 아니다(박학룡) | 생생리포트: 작지만 강한 힘,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박희석·곽지원)

2012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농업: 다양한 존재형태와 발전방향(김태곤) | 서울의 도시농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이강오) | 생생리포트: 서울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2012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가계부채(김동환) | 건강한 주택시장을 향한 제언(홍미영) | 생생리포트: 2012년 서울, 청년취업생들의 초상(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2012년 하

반기 서울경제 전망(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청년층의 구인난과 중소기업 구인난 불일치 분석 및 해소방안(김영생) | 서울시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본 젠더 거버넌스(김영미)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여성 CEO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실업자 추이 및 청년 실업률(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제조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업규모별 발전특성 및 시사점(이종욱) |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발전방안: 협동조합금융의 재안(김자봉) | 생생리포트: 서울 물가상승 추이 및 대응방안(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선식품 및 소비자물가 추이 | 2012년 상반기 서울 가계대출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도시 아메니티 형성과 도시문화정책의 방향(용호성) | 서울시 MICE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권영돈) | 생생리포트: 노후준비에 대한 서울가구 의견조사(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2012 서울시민들의 노후준비 | 서울 아파트 평당 (3.3m) 전세가격과 증가율(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의 대형마트, SSM의 영업제한제도 시행현황 및 상생협력(강희은) |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김범식) | 생생리포트: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실태(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서울여성CEO 현황 및 상위 5개 업종 | 서울 자영업자 상위 5개 업종과 자치구별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노인일자리아업의 현황과 쟁점(남기철) |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정성미)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마용산업의 특징과 자치구별 현황(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서울지역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추이 | 서울시민 주거형태와 전세자금 대출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013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중산층 재건을 위한 사회안전망(김경혜) | 중산층의 변화와 대응(김용기) | 생생리포트: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

지 활성화 방안(최동욱) |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규 구인·구직 직종(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남윤형) |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통한 서울시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노희봉) | 생생리포트: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한 희망결연 프로젝트(박승돈)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석유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양현봉) |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동주) | 생생리포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중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안해칠)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전력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소외와 서울시 서민금융의 방향(박덕배) | 서울시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배준식) | 생생리포트: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서울경제분석센터)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문화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고정민) | 창조경제론의 부상과 서울시 대응전략(라도삼) | 생생리포트: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김재묵) | 인포그래픽스: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곽대중) | 저에너지건물 보급, 무엇이 문제인가?(김민경) | 생생리포트: 서울, 주점보다 커피전문점(서울경제분석센터) | 인포그래픽스: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최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R&D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김연배) | 기업의 R&D 아웃소싱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박문수)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서울신용보증재단) |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벤처기업 최근 5년간 1.7배로 증가(서울경제분석센터)